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Lives of the Stoics · Chapter 12 CICERO THE FELLOW TRAVELER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Ryan Holiday & Stephen Hanselman, Lives of the Stoics — 「Cicero the Fellow Traveler」 (원서 PDF 86~98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10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는가."

키케로는 스토아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고대 스토아에 관해 우리가 아는 많은 것이 그의 글을 통해 살아남았다. 그는 포시도니오스에게 배웠고 의무에 관한 아름다운 책을 남겼지만, 정작 그 원칙대로 살 용기는 끝내 내지 못했다. 공부에도 '동행자'가 있다. 해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다 안다고 믿지만, 스스로 풀어 보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10장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전자책이라 인쇄 쪽 번호가 없음).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시·대화·책 목록)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내면의 성채는 미리 짓는다(98쪽 ¶1~¶2) / 쓰되 살지 않은 철학 —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본보기(96쪽 ¶1) / 베레스 재판의 두 번 승리(89쪽 ¶6 ~ 90쪽 ¶1) / 두 가지 동기(90쪽 ¶3) / 글로 남긴 영광(94쪽 ¶7)
4~5	**밑줄 함축 의미**	a fellow traveler / only attributes, not convictions / a training montage / choosing oneself "a Cato" / lodestar / doubly victorious / a professional son / clung to him like fate / History ... was in his debt / the high-water mark / the victory was Pyrrhic / accept the bridle / foot-in-both-camps / What's past is prologue / Hercules at the crossroads / splitting the difference / the inner citadel
6	지칭 추론	he·his가 Cicero·Brutus 사이를 오가는 96쪽 ¶3~¶5 / who가 Posidonius가 아니라 Marius를 받는 87쪽 ¶7 / the latter = 지도자로서의 악덕(95쪽 ¶4) / him·he = Catiline(91쪽 ¶3 ~ 92쪽 ¶3) / that = the compass(89쪽 ¶3)
7~8	내용 일치·불일치	로마 생활과 수련(88쪽 ¶1~¶5: 90 BC · 16세 · 500행 · 여섯 살 아래 카이사르 · 18세 필론 · 20세 첫 책 · 29세 귀환) / 법무관에서 집정관으로(91쪽 ¶2~¶4: 39세 · 40세 · 10명 · 93~43 BC · 카틸리나와 안토니우스 · 63 BC) / 열여섯 개의 연도(106 BC ~ 43 BC)
9~10	**어법**	가주어 · 강조구문(It was the Stoics who / it is through ~ that) · Nor 도치 · demand (that) S 원형 · 난이 형용사 + to V · 현수 분사(Having checked ~, it was time) · had not + S + p.p. 도치 · could not have p.p. · whether절 주어 · 간접의문문 주어 · induce + O + to V · too ~ to V · Never before 도치 · 혼합 가정법 · as did + S · Would that — 9번은 재무관 선거(89쪽 ¶2~¶3), 10번은 자화자찬(92쪽 ¶7~¶8)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indifferent↔devoted · rejected↔accepted(유증) · would accept no bribes↔took bribes · deficient↔sufficient · enduring↔fleeting · decisive↔indecisive · turned it down↔accepted · uncontested↔contested · heed↔ignore · undeterred↔discouraged — 11번은 90쪽 ¶4 ~ 91쪽 ¶1
12	빈칸 추론	upward social mobility / a double motive / the lives these figures had lived(Character. Commitment. Purpose.) / a kind of bridge between Greek and Latin / not the opinions of the crowd / this character trait proved to be destiny / the inner citadel
13	문장 삽입	권력 위임 → 망설임 → 테렌티아의 해석 → 재판 없는 처형 → '국부'(92쪽 ¶4~¶6) / 정점 → 삼두정치 → 처벌령 → 추방(93쪽 ¶3)
14	무관한 문장	아카데미학파 · 카르네아데스 · 히에로니무스 · 아우구스티누스 단락(95쪽 ¶2~¶3)에 무관한 소재 끼워 넣기 / 경제 위기(91쪽 ¶4) / 재산 모으기(90쪽 ¶4)
15	순서 배열	수사에 대한 사랑 → 열네 번의 연설 → 파멸 → 사형 선고(97쪽 ¶3~¶5) / 신탁 → 세네카의 '카토' → 마리우스(88쪽 ¶8 ~ 89쪽 ¶1)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6	요약문 완성	카토는 용기, 키케로는 생존(94쪽 ¶4~¶6) / 쓰되 살지 않음(96쪽 ¶1) / 원하는 것을 얻고 후회함(93쪽 ¶2)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고유명사·숫자·True/False 8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연도가 유난히 많은 장이다(106 · 90 · 75 · 71 · 70 · 67 · 63 · 62 · 60 · 58 · 51 · 49 · 48 · 46 · 45 · 44~43 BC). 인물도 많다(포시도니오스 · 디오도토스 · 마리우스 · 카토 · 카틸리나 · 폼페이우스 · 카이사르 · 브루투스 · 안토니우스 · 옥타비아누스).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refused to lead ↔ agreed to lead troops, six years his junior ↔ senior, rejected ↔ accepted bequests, accept no bribes ↔ took bribes, Rhodes ↔ Athens). 동사와 장소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는다.

1-2. 구조도 — 「Cicero the Fellow Traveler」 (87~98쪽)

전기형(스토아의 학생 → 출신과 본보기 → 수련 → 정치 입문 → 베레스와 부 → 집정관과 카틸리나 → 절대 권력 → 몰락과 서재 → 카이사르와 카토 → 글의 유산 → 의무의 책과 죽음). 핵심 축은 **쓰기(writing) vs 살기(living)**, 그리고 **명성(fame) vs 원칙(principle)**.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87 ¶1~¶3	도입	스토아는 아니지만 열성적인 학생(포시도니오스 · 디오도토스) / 스토아에 관한 앎이 그의 글로 살아남음 / 원칙대로 살지 못한 '동행자' · 그래도 시대 최고의 재능
87 ¶4~¶7	출신과 본보기	무너지는 기원전 1세기 / 106 BC 아르피눔의 기사 계급 · 병아리콩(cicer) / 목적 = 신분 상승 / 첫 영감 = 마리우스 / 새로운 사람(노비 호미네스)
88 ¶1~¶3	로마의 소년	90 BC 16세 · 연설과 법 / 하룻밤 500행(전해짐) / 출세의 수단 / 여섯 살 아래 카이사르 / 스스로 다듬은 출세 서사
88 ¶4~¶7	수련	18세 필론 · 첫 소송 · 20세 첫 책 · 아테네 · 로도스의 포시도니오스 / 29세 귀환 / 신념 아닌 속성 / 훈련인가 이력서 쌓기인가
88 ¶8 ~ 89 ¶1	잘못된 북극성	양심을 따르라는 신탁 / 세네카의 '카토' / 카토 대신 마리우스(닉슨 · 푸틴) / 성품이 운명이 됨
89 ¶2~¶3	정치 입문	30세 출마 자격(재무관) · 손쉬운 첫 당선 / 장인처럼 유권자의 이름 · 땅 · 필요를 앎(플루타르코스) / 정치적 의미의 필요 · 다른 나침반
89 ¶4~¶6	시칠리아	75 BC 세금 징수 · 관리 / 아르키메데스의 무덤과 자화자찬 / 필로독시아 · 필로티미아 / 71 BC 베레스 사건 · 50일 조사
90 ¶1~¶3	두 번의 승리	4천만 세스테르티우스 · 매수된 배심원 · 유죄 판결 + 조영관 / 정의 때문이었나 / 두 가지 동기
90 ¶4 ~ 91 ¶1	부	부에 무관심한 스토아 vs 사치를 좇음 / 테렌티아 · 별장 아홉 채 / 유증 2천만 이상 · 직업적 아들 / 정원과 서재 / 뇌물 · 수임료 거절
91 ¶2~¶4	집정관	67 BC 법무관 당선(39세) · 폼페이우스 지지 / 새로운 사람 10명 · 93~43 BC엔 유일 / 카틸리나와 안토니우스 / 63 BC 경제 위기 · 계층 간의 화합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91 ¶5 ~ 92 ¶3	카틸리나	선거 뇌물 10년 추방법 / 암살 계획 · 일생일대의 연설 / 엘리트주의로 맞선 카틸리나의 도주 / 위협의 과장 의혹
92 ¶4~¶6	절대 권력	거의 독재적 권한 · 카토의 재촉 / 평판 때문의 망설임 · 테렌티아의 결정적 표 / 재판 없는 처형 · '국부'
92 ¶7 ~ 93 ¶2	자화자찬	업적 선전(플루타르코스) / 포시도니오스의 거절 · 폼페이우스에게 책만 한 편지(62 BC) / 해스켈의 평 / 다스리지 못한 감정
93 ¶3~¶7	몰락과 서재	60 BC 삼두정치 · 58 BC 처벌령과 추방 · 1년 뒤 철회 / 『연설가론』(56 BC) · 『국가』 · 『법률』 / 놓친 것 = 성품 · 헌신 · 목적 / 51 BC 킬리키아
93 ¶8 ~ 94 ¶3	결정적 순간	49 BC 루비콘 · 48 BC 폼페이우스의 죽음 / 엉뚱한 위기에 소진 · 피로스의 승리 / 청중도 권력도 없음 · 군 지휘권 거절
94 ¶4~¶7	카토와 키케로	46 BC 우티카 · 카토의 순교 / 쉰 단어 남은 추도문 · 자기 검열 / 용기 vs 죽지 않기 / 그리스와 라틴을 잇는 다리
94 ¶8 ~ 95 ¶3	역설과 아카데미	『스토아 역설』(46 BC · 브루투스) · 역설 여섯 / 그리스 철학을 라틴어로 처음 / 카르네아데스 · 히에로니무스 · 아우구스티누스 / 양다리 = 악덕
95 ¶4 ~ 96 ¶7	쓰되 살지 않음	56~44 BC의 저작 / 카이사르에게 아첨 · 툴리아의 죽음 / 디오티무스처럼 반면교사 / 암살 음모에서 빠짐 · 공을 가로챔 / 또 그릇된 편
96 ¶8 ~ 98 ¶6+인용	의무의 책과 죽음	21세 아들 마르쿠스에게 의무를 / 『필리피카』 14번 · 재판 없는 사형 / 지어지지 않은 내면의 성채 / 나폴리와 로마 사이 · 폴리오의 묘비명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스토아와의 관계	원칙을 글로 설명하고 보존(articulate and preserve)	그 원칙대로 사는 것(live by the principles)
정치에 나선 이유	신분 상승(upward social mobility) · 명성	의무감(a sense of duty) — 앞선 스토아
본보기	마리우스(lodestar) — 날것의 야망	카토("a Cato") — 자신을 재는 잣대
삶의 안내자	군중의 의견 · 환호(the cheers of the crowd)	양심(conscience) — 신탁의 경고
유권자의 '필요'	날것의 정치적 의미(quid pro quo)	스토아적 의미(폴리스와 국가에 좋은 것)
옳은 일의 동기	자신에게 무엇을 해 줄지(a double motive)	정의 그 자체(공정과 진실)
부와 유증	사치를 좇음 · 유증 2천만 · 직업적 아들	부에 무관심 · 유증 거절(클레안테스 · 마르쿠스)
절대 권력 앞의 망설임	평판(reputation) 때문	도덕적 이유(moral reasons)
카이사르 앞에서	죽지 않기 · 굴레를 받아들임(키케로)	용기 · 싸움 · 순교(카토)
양다리 태도	글쓰기에는 장점(다양한 자료 보존 · 훌륭한 글)	인간 · 지도자로서는 부끄러운 악덕
수사(rhetoric)	주목을 위한 연설(『필리피카』 · 데모스테네스 비교)	원칙에 선 규탄(카토라면)
위기를 맞는 내면	형편 좋을 때만의 개인 철학(fair-weather)	미리 지어 둔 내면의 성채(the inner citadel)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Cicero	B. 106 BC(1월 3일) – D. 43 BC · 출신 아르피눔(로마 남동쪽 약 70마일, 최근에야 로마 시민권) · 발음 SIS-er-oh · 부유한 기사 계급 · 집안 이름 = 병아리콩(cicer)
스토아와의 관계	스토아는 아님(자칭도 하지 않았을 것) · 포시도니오스에게 직접 배움 · 『투스쿨룸 대화』: 스토아만이 "유일한 참된 철학자" · 고대 스토아에 관한 앎의 많은 부분이 그의 글로 살아남음
Diodotus	눈먼 스토아 · 여러 해 함께 삶 · 기원전 **60년** 키케로의 집에서 죽으며 전 재산을 남김
Marius / novi homines	첫 영감 = 마리우스(같은 아르피눔 출신의 벼락출세자, 포시도니오스가 임종을 지켜봄) · 둘 다 '새로운 사람'(파트리키 계층 밖에서 원로원 권력에 오른 집안 최초)
90 BC / 16세	아버지가 연설과 법을 배우라고 로마로 보냄 · 전기 작가 앤서니 에버릿: 이 시기에 유명한 변호인이 되려는 야망이 굳어짐
500행 / Caesar	하룻밤 **500행**(전해짐 · 크리시포스처럼) · 인맥 = **여섯 살 아래**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18 · 20 · 29세	18세 라리사의 필론(아테네에서 로마로 피신한 플라톤 아카데미의 수장) · 20세 수사학 첫 책 · 아테네 → **로도스**(포시도니오스) · 29세 귀환("2년 만에")
oracle / "a Cato"	신탁: 군중의 의견이 아니라 양심이 삶을 이끌게 하라(전해짐) / 세네카: 자신을 재는 잣대로 '카토'를 고르라 / 키케로는 마리우스(닉슨 · 푸틴에 비유)
quaestor (30세)	재무관 = '질문하는 사람'(실제로는 법 기초 · 청원 응대) → 원로원 의원 / 장인처럼 유권자의 이름 · 땅 크기 · 사업 · 필요까지 앎(플루타르코스)
75 BC / Sicily	시칠리아의 세금 징수 · 관리 / 시라쿠사의 **아르키메데스** 무덤(거의 150년, 버려지고 풀이 무성) 발견 · "아르피눔 사람"의 자화자찬
philodoxia / philotimia	명성과 명예에 대한 사랑(후대 전기 작가들의 표현) — 신탁이 경계하라 한 것
Verres (71 · 70 BC)	시칠리아 시민들이 낸 갈취 소송의 검사 · **50일** 조사 · 3년간 **4천만** 세스테르티우스 · 매수된 배심원에도 유죄 판결 · 70 BC 조영관(공공질서 규제 · 집행) → 두 번의 승리
cursus honorum	야심가들이 오르는 '관직의 사다리' — 재무관 → 조영관 → 법무관 → 집정관
부 / Terentia	안티파트로스의 조언대로 부유한 테렌티아와 결혼 · 별장 **아홉** 채(포르미아이의 해변 휴양지 · 술라의 것이던 투스쿨룸 별장) · 유증 **2천만** 세스테르티우스 이상 · '직업적 아들'
Cleanthes / Marcus Aurelius	클레안테스 = 제논의 지시로 유증 **거절** · 마르쿠스도 그렇게 함 / 키케로는 뇌물 · 변론 수임료를 받지 않음
praetor (67 · 66 BC)	39세 당선 · 40세(법정 최연소) 취임 · 폼페이우스 지지 덕 / 레이버리: 마지막 150년 새로운 사람 집정관 **10명**, 93~43 BC엔 키케로뿐
63 BC / Catiline	경쟁자 카틸리나 · 안토니우스 / 경제 위기(동방 무역로 봉쇄 · 실업 · 불황) · 계층 간의 화합 / 선거 뇌물 처벌 = **10년** 추방 / 위협의 과장 의혹
Father of His Country	거의 독재적 권한 · 카토의 재촉 · 테렌티아의 결정적 표 · 음모자들을 재판 없이 처형(수천 명 더 사망) → 원로원이 준 칭호
Posidonius / Pompey	쉰두 권 역사서에 집정관 시절을 써 달라는 청을 포시도니오스가 거절 → 62 BC 폼페이우스에게 '책만 한' 편지 → 어깨만 으쓱 / 해스켈: 너무 예민하고 허영심 많아 위대한 지도자가 못 됨
60 · 58 · 51 BC	60 BC 삼두정치(카이사르 · 폼페이우스 · 크라수스) · 58 BC 처벌령(사유: 재판 없이 시민을 처형) → 추방 · 재산 파괴 · 1년 뒤 철회 · 51 BC 킬리키아 총독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On Oratory (56 BC)	『연설가론』: 카토와 루틸리우스 루푸스의 수사 비교(루푸스의 간결함이 그를 저버림) / 『국가』 · 『법률』 = 바빌론의 디오게네스 · 파나이티오스에 기댐
49 · 48 · 46 BC	49 BC 초 카이사르의 루비콘 · 48 BC 9월까지 폼페이우스 사망 · 군 지휘권 거절 · 46 BC 카토가 **우티카**에서 자살(추도문은 **쉰 단어**만 남음) · 『스토아 역설』(브루투스에게 헌정)
45 BC	딸 **툴리아**의 죽음 · 브루투스의 『덕에 관하여』(키케로에게 헌정) / 주요 저작 = 56~44 BC(대부분 46~44 BC), 예외 『발상론』(약 20세)
44~43 BC	아들 마르쿠스(21세)에게 의무를 다룬 마지막 저작 / 안토니우스를 겨냥한 연설 **14번**(『필리피카』) · 재판 없는 사형 · 나폴리와 로마 사이의 길 · 묘비명 = 카이사르의 병사 폴리오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Lives of the Stoics · 「Cicero the Fellow Traveler」 (원서 PDF 87~98쪽) · 10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12-1 스토아가 아니었던 스토아의 학생 87쪽 ¶1~¶7

원문 위치 원서 87쪽 ¶1~¶7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첫 문장	It cannot be said that Cicero was a Stoic	가주어 it + that절(수동)
▲	¶1 둘째 문장	Nor would he have claimed to be.	부정어 Nor 도치 + would have p.p.
★	¶1 넷째 문장	He spent time directly under Posidonius.	10장 연결 · 서답형 후보
▲	¶1 다섯째 문장	leaving his estate to the powerful young man he had long tutored	분사구문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1 여섯째 문장	It was the Stoics who, Cicero deemed …, "are the only true philosophers."	강조구문 + 삽입절
▲	¶1 일곱째 문장	it is through Cicero's writing that much of what we know … survives	강조구문(부사구) + much of what
◆	¶2 둘째 문장	He was a fellow traveler, a man without a party	밑줄 의미 1순위
●	¶2 둘째 문장	deficient in the courage and character	반전 후보 → sufficient
▲	¶2 둘째 문장	that Stoicism demanded he demonstrate	demand + (that) S + 원형
★	¶6 첫 문장	January 3, 106 BC, in Arpinum … seventy miles southeast of Rome	숫자·지명 — 서답형 후보
▲	¶6 둘째 문장	which suggests they had … once been involved in trade	계속적 which(앞 절 전체)
◆	¶6 셋째 문장	upward social mobility	빈칸 후보: 의무가 아닌 신분 상승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 셋째 문장	the one whose last breaths had been observed by Posidonius, who had achieved	whose + 과거완료 수동 / who = Marius
▲	¶7 다섯째 문장	suggested that Cicero change his name	suggest + (should) 원형
▲	¶7 다섯째 문장	fame so great that no one would ever say such a thing again	so ~ that 결과
★	¶7 여섯째 문장	novi homines, "new men"	서답형 · 내용 일치 후보

내용

키케로가 스토아였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자신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스토아의 열성적인 학생이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는 포시도니오스에게 직접 배웠고, 눈먼 스토아 철학자 디오도토스는 여러 해 그와 함께 살다가 키케로의 집에서 세상을 떠나며, 오래 가르쳐 온 이 유력한 젊은이에게 재산을 남겼다. 키케로는 『투스쿨룸 대화』에서 스토아만이 "유일한 참된 철학자"라고 판단했고, 고대 스토아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의 많은 부분이 그의 글을 통해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설명하고 보존한 원칙대로 실제로 살겠다는 결심을 끝내 하지 못했다. 그는 '동행자', 곧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 모든 성공과 야망에도 그의 시대가, 그리고 스토아 철학이 보여 주기를 요구한 용기와 성품이 모자란 사람으로 드러난다. 그래도 그는 그 시대 최고의 재능이었다. 기원전 1세기는 옛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때였다. 정치 갈등과 민중 봉기가 일었고, 선동가들이 엄청난 권력을 쌓았으며, 사법 제도는 짜인 게임으로 전락했다. 이 혼돈은 키케로 같은 야심가의 발걸음을 늦추지 못했지만 그의 삶을 규정하게 된다. 그는 기원전 106년 1월 3일, 로마에서 남동쪽으로 약 70마일 떨어진, 얼마 전에야 로마 시민권을 받은 시골 도시 아르피눔의 부유한 기사 계급 집안에서 태어났다. 집안 이름은 병아리콩을 뜻하는 라틴어(cicer)에서 왔는데, 제논의 집안처럼 한때 장사를 했음을 시사한다. 의무감에서 공적 삶에 이끌린 앞선 스토아들과 달리, 키케로가 찾던 것은 신분 상승이었다. 그에게 영감을 준 것은 디오게네스의 마지못한 정치도, 안티파트로스의 윤리적 성향도, 파나이티오스의 막후 영향력도, 스승 포시도니오스도 아니었다. 첫 영감은 마리우스의 눈부신 부상이었다. 포시도니오스가 마지막 숨을 지켜본 그 사람, 빛나는 혈통 없이 날것의 야망만으로 엄청난 권력과 명성을 얻은 사람이다. 마리우스 역시 아르피눔 출신의 벼락출세자였다. 졸부 출신을 감추려면 이름을 바꾸라는 친구들의 권유에, 키케로는 아무도 다시는 그런 말을 못 할 만큼 큰 명성을 얻겠다고 맹세했다. 실제로 두 사람은 모두 파트리키 계층 밖에서 원로원 권력에 오른 집안 최초의 사람, 곧 '새로운 사람들(노비 호미네스)'이 된다.

어법

- **It cannot be said that Cicero was a Stoic. Nor would he have claimed to be.** :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조동사 + 수동(cannot be said). 둘째 문장은 부정어 Nor가 문두에 와서 would + 주어 도치. to be 뒤 a Stoic이 생략됐다.
- **The blind Stoic Diodotus lived with him for years and even died in Cicero's home, leaving his estate to the powerful young man he had long tutored** : leaving ~ = 결과를 덧붙이는 분사구문(and left ~). the powerful young man 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had tutored = 대과거(죽기 전까지 오래 가르쳤다).
- **It was the Stoics who, Cicero deemed in his book Tusculan Disputations, "are the only true philosophers."** : It was ~ who 강조구문(주어 the Stoics 강조). Cicero deemed ~ = 삽입절. 인용 부분은 키케로의 말을 그대로 옮겨 현재형 are를 썼다.
- **it is through Cicero's writing that much of what we know about Stoicism in the ancient world survives** : It is + 부사구 + that 강조구문. 주어 much of what we know(단수 취급) → survives. what =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 **deficient in the courage and character that his moment in history demanded—that Stoicism demanded he demonstrate** : be deficient in = ~이 부족하다. 대시 뒤 that도 courage and character를 받는 관계대명사이고, demanded (that) he demonstrate = 요구 동사 뒤 that절이라 (should) 생략 → 원형 demonstrate.
- **a provincial town about seventy miles southeast of Rome that had only recently received the rights of Roman citizenship** : that의 선행사는 바로 앞 Rome이 아니라 a provincial town(아르피눔) — 시민권을 받은 쪽은 로마가 아니라 시골 도시다. had received = 대과거.
- **the meteoric rise of Marius, the one whose last breaths had been observed by Posidonius, who had achieved—through raw ambition—immense power and fame** : the one = Marius의 동격. whose + 명사 + 과거완료 수동(had been observed). 뒤 who의 선행사도 바로 앞 Posidonius가 아니라 the one(마리우스) — 혈통 없이 야망으로 권력을 얻은 사람이다.
- **When friends suggested that Cicero change his name to hide his nouveau riche origins, he vowed instead to achieve fame so great that no one would ever say such a thing again** : suggest(제안) + that + S + (should) 원형 → change. to hide = 목적의 to부정사. vow to V = ~하겠다고 맹세하다. so + 형용사 + that = 너무 ~해서 …하다(결과).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undeniable	부정할 수 없는	indisputable	doubtful
dedicated	열성적인, 헌신적인	devoted	indifferent
estate	재산, 유산	property	—
tutor (v.)	가르치다	teach	—
deem	~라고 여기다	consider	—
articulate (v.)	분명히 설명하다	express	—
deficient	부족한	lacking	sufficient
amass	쌓다, 모으다	accumulate	scatter
devolve into	(나쁜 상태로) 전락하다	degenerate into	—
striver	애써 출세하려는 사람	go-getter	—
provincial	지방의, 시골의	rural	metropolitan
upstart	벼락출세한 사람	parvenu	aristocrat
meteoric	눈부시게 빠른	rapid	gradual

내용 일치 스토아는 아니었지만 열성적인 학생 · 포시도니오스에게 직접 배움 · 디오도토스 = 눈먼 스토아, 키케로의 집에서 죽으며 재산을 남김 · 『투스쿨룸 대화』: 스토아만이 참된 철학자 · 출생 = 기원전 106년 1월 3일 아르피눔(로마 남동쪽 약 70마일, 최근에야 시민권) · 병아리콩(cicer) · 목적 = 신분 상승 · 첫 영감 = 마리우스(같은 아르피눔 출신). **지칭** ¶1 the powerful young man = Cicero, his estate = 디오도토스의 재산 / ¶6 they = 키케로의 집안 / ¶7 the one = Marius, who had achieved의 who = Marius(Posidonius 아님), he vowed = Cicero.

> **한 줄 요약** 스토아를 누구보다 잘 알고 기록한 키케로는 그 원칙대로 살지는 못한 '동행자'였고, 아르피눔 출신의 그가 처음 본보기로 삼은 사람은 마리우스였다.

12-2 로마로 간 소년, 다듬어진 출세 이야기 88쪽 ¶1~¶7

원문 위치 원서 88쪽 ¶1~¶7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첫 문장	90 BC ... at the age of sixteen	숫자 — 서답형 후보
▲	¶1 첫 문장	when at the age of sixteen he was sent there by his father to study	관계부사 when + 수동 + 목적의 to부정사
▲	¶1 둘째 문장	fell in love with what we might now call the life of the "elites"	what + call A B 구조
▲	¶1 셋째 문장(인용)	It was during these years that Cicero's ambition ... crystallized	강조구문(시간 부사구)
▲	¶2 첫 문장	studied like a man with something to prove	형용사적 to부정사
▲	¶2 둘째 문장	He was said to produce	be said to V(전언)
★	¶2 둘째 문장	as many as five hundred lines per night, just as Chrysippus	숫자·인물 — 4장 연결
◆	¶2 여섯째 문장	he also saw it as a way to get ahead	지칭: it = philosophy and literature
▲	¶2 일곱째 문장	squeezes from the game every advantage they can	목적어 후치 + 단수 they
★	¶2 여덟째 문장	a boy six years his junior, Gaius Julius Caesar	숫자 — 내용 일치 함정(junior)
◆	¶3 첫 문장	a training montage	밑줄 의미: 다듬어진 성장 서사
▲	¶3 둘째 문장	Cicero—himself the source of so much of what we know about him—was	삽입 동격 + 본동사 was
★	¶4 첫 문장	At eighteen, he attached himself to Philo of Larissa	숫자·인물 — 서답형 후보
▲	¶4 셋째 문장	becoming a respected author at just twenty years old	결과의 분사구문
★	¶5 첫 문장	returned to Rome at age twenty-nine	숫자 — 내용 일치 후보
◆	¶6	only attributes, not convictions	밑줄 의미 1순위

내용

키케로의 로마 생활은 기원전 90년에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열여섯 살의 그를 연설과 법을 배우라고 로마로 보낸 것이다. 아버지의 사업 인맥 덕을 본 그는 곧바로 오늘날 '엘리트'의 삶이라 부를 만한 것에 빠져들었다. 전기 작가 앤서니 에버릿은 유명한 변호인이 되려는 그의 야망이 이 시기에 굳어졌으며, 그가 포룸 재판의 거의 견딜 수 없는 흥분과 주연

배우 같은 변호인 일의 화려함에 휩쓸렸다고 쓴다. 같은 처지의 다른 젊은이들이 놀며 재산(과 부모의 감시가 없는 자유)을 즐길 때, 키케로는 증명할 것이 있는 사람처럼 공부했다. 크리시포스가 그랬다고 알려진 것처럼 하룻밤에 500행이나 썼다고 전해지는데, 저자는 철학의 영웅에게 바친 의도적인 경의였을 것이라고 본다. 그는 철학과 문학을 사랑했지만 출세의 수단으로도 보았다. 타고난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점을 짜내듯, 그것은 그가 잠재력을 실현하는 수단이었다. 그는 큰일을 위해 선발된 젊은이들과 인맥도 쌓았는데, 그 가운데 여섯 살 아래의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있었다. 그의 젊은 시절은 전성기에 맞을 극적인 사건을 위한 훈련 몽타주 같다. 아마 그렇게 보이는 것은, 자신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의 많은 부분의 출처인 키케로가 자기 출세 이야기를 눈에 띄게 다듬은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야기는 이렇다. 열여덟 살에 그는 아테네에서 로마로 피신해 온 플라톤 아카데미의 수장 라리사의 필론을 따랐다. 술라의 격동적인 개혁기에 첫 소송들을 맡아 권력자들을 상대로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수사학에 관한 첫 책을 마쳐 스무 살에 존경받는 저자가 되었다. 이어 아테네에서 온갖 학파의 스승에게 배웠고, 다시 로도스로 가서 포시도니오스에게 스토아를 배웠다. 천재는 천재를 곧바로 알아보았다. 스물아홉 살에 로마로 돌아왔을 때 그는 여러 해의 고된 노력과 끈질긴 추진력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2년 만에 돌아왔을 때 더 노련해졌을 뿐 아니라 거의 다른 사람이 되었다며, 목소리의 무리가 사라지고 문체가 가라앉았으며 폐가 튼튼해지고 덜 말랐다고 썼다. 저자는 그가 신념이 아니라 속성만 늘어놓는다는 데 주목하라고 한다. 재능 있고 야심 찬 많은 사람이 그렇듯, 이것이 키케로가 한 거의 모든 일에 던질 질문이다. 동기는 진심이었는가, 모두 어떤 계획의 일부였는가. 훈련이었나, 이력서 쌓기였나.

어법

- **Cicero's life in Rome began in 90 BC, when at the age of sixteen he was sent there by his father to study public speaking and the law** : 콤마 + when = 계속적 용법 관계부사(선행사 90 BC). 보내'진' 쪽 → 수동 was sent. to study = 목적의 to부정사.
-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what we might now call the life of the "elites"** : what절 = 전치사 with의 목적어. call A B(A를 B라 부르다)에서 A 자리가 what으로 빠져나간 구조.
- **"It was during these years that Cicero's ambition to become a famous advocate crystallized."** : It was ~ that 강조구문(시간의 부사구 강조). ambition to V = ~하려는 야망(형용사적 to부정사). crystallize = 자동사(굳어지다).
- **He was said to produce—as a deliberate homage to a philosophical hero, no doubt—as many as five hundred lines per night, just as Chrysippus was famed to do** : be said to V = ~라고 전해진다(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전언). no doubt = 저자의 추정. as many as + 수 = ~나 되는(많음 강조). do = produce 대신 쓴 대동사.
- **just as a natural athlete is drawn to sports and squeezes from the game every advantage they can** : squeeze A from B에서 목적어 every advantage가 길어 뒤로 갔다. they = a natural athlete를 받는 단수 they. can 뒤 squeeze 생략.
- **a boy six years his junior, Gaius Julius Caesar** : six years + 소유격 + junior = ~보다 여섯 살 아래(= six years younger than he). junior를 senior로 바꾸면 손위가 되어 사실이 뒤집힌다.
- **because Cicero—himself the source of so much of what we know about him—was a conspicuous crafter of the narrative of his own rise** : 대시 사이 = 주어 Cicero의 동격 삽입(himself = 강조). 본동사 was. crafter = 만드는 사람 → 자기 출세 서사를 공들여 만든 사람.
- **Notice he lists only attributes, not convictions.** : 명령문 Notice + (that) 절. only A, not B = B가 아니라 A만. attributes(속성: 목소리 · 문체 · 폐) ↔ convictions(신념).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rystallize	굳어지다, 구체화되다	take shape	dissolve
unbearable	견딜 수 없는	intolerable	bearable
supervision	감독	oversight	—
homage	경의	tribute	disrespect
get ahead	출세하다	succeed	fall behind
handpick	엄선하다	select	—
pivotal	중대한	crucial	minor
conspicuous	눈에 띄는	noticeable	inconspicuous
tumultuous	격동의	turbulent	calm
decamp	(급히) 떠나다	depart	remain
crucible	시련(의 장)	trial, test	—
relentless	끈질긴	unremitting	half-hearted
conviction	신념	belief	doubt

내용 일치 로마 생활 시작 = 기원전 90년, 16세(아버지가 보냄 · 연설과 법) · 하룻밤 500행 = '전해지는' 이야기(크리시포스처럼) · 카이사르 = 여섯 살 '아래' · 18세 = 라리사의 필론(아테네 → 로마로 피신한 아카데미의 수장) · 20세 = 수사학 첫 책 · 아테네 → 로도스(포시도니오스) · 29세 귀환(2년 만). **밑줄 의미** a training montage = 영화처럼 다듬어진 성장 장면 — 키케로 자신이 그 서사의 출처라 그렇게 보인다 / only attributes, not convictions = 달라진 것은 목소리 · 문체 · 체력일 뿐, 신념은 없다.

> **한 줄 요약** 키케로는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사람처럼 공부하고 인맥을 쌓았지만, 스스로 다듬은 그의 성장 이야기에는 신념이 아니라 속성만 나온다.

12-3 마리우스라는 북극성, 유권자를 외우는 정치인 88쪽 ¶8 ~ 89쪽 ¶6

원문 위치 원서 88쪽 ¶8 ~ 89쪽 ¶6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8쪽 ¶8 첫 문장	an oracle had warned Cicero early to let his conscience guide his life	warn + O + to V / let + O + 원형
★	88쪽 ¶8 첫 문장	not the opinions of the crowd	요지 후보(98쪽 ¶1과 수미상관)
▲	88쪽 ¶8 첫 문장	such a warning was impossible to heed	난이 형용사 + to V
◆	88쪽 ¶8 둘째 문장	choosing oneself "a Cato"	밑줄 의미: 자신을 재는 잣대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8쪽 ¶8 셋째 문장	Cicero, who lived alongside a real Stoic like Cato, chose	삽입 관계절 + 본동사
◆	89쪽 첫 줄	choosing Richard Nixon or Vladimir Putin as one's lodestar	밑줄 의미: 잘못 고른 북극성
★	89쪽 ¶1 둘째 문장	this character trait proved to be destiny	빈칸·요약 후보
▲	89쪽 ¶2 첫 문장	Having checked all the boxes …, it was time for Cicero to begin	현수 분사구문(의미상 주어 = Cicero)
★	89쪽 ¶2 둘째 문장	At thirty … quaestor … "the one who asks questions"	숫자·관직 — 서답형 후보
▲	89쪽 ¶2 다섯째 문장	Inspired by craftsmen who knew the names	과거분사 분사구문
▲	89쪽 ¶2 다섯째 문장	knowing not only the names … but the sizes of	not only A but B
◆	89쪽 ¶3 일곱째 문장	a compas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Diogenes	지칭: that = the compass
★	89쪽 ¶4 첫 문장	By 75 BC … a tax collector and manager in Sicily	연도·지명 — 내용 일치 후보
▲	89쪽 ¶4 넷째 문장	would have been ignorant …, had not a man of Arpinum pointed it out	if 생략 가정법 과거완료 도치
★	89쪽 ¶6 첫 문장	philodoxia and philotimia—loves of fame and honor	서답형·빈칸 후보
★	89쪽 ¶6 넷째 문장	In 71 BC … Verres … aedile, … in 70 BC	연도·관직 — 서답형 후보

내용

일찍이 한 신탁이 키케로에게 군중의 의견이 아니라 양심이 삶을 이끌게 하라고 경고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키케로처럼 야심에 내몰린 사람에게 그 경고는 따를 수 없는 것이었다. 훗날 세네카는 자신을 재고 이끌 잣대로 삼을 '카토 같은 사람'을 고르는 일이 중요하다고 쓴다. 소 카토라는 진짜 스토아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키케로는 대체로 다른 곳에서 영감을 찾았다. 젊은 시절 그가 고른 사람은 카토가 아니라 마리우스였다. 리처드 닉슨이나 블라디미르 푸틴을 북극성으로 삼는 것과 조금 비슷하다. 이상하고도 많은 것을 드러내는 선택이었고, 스토아가 즐겨 말했듯 이 성품은 운명이 되었다. 20대 말까지 갖출 것을 모두 갖춘 그는 오래 계획한 정치적 상승을 시작했다. 로마인은 서른 살이 되면 재무관(quaestor)에 출마해 이어 원로원 의원이 될 수 있었다. 재무관은 말뜻으로는 '질문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법을 기초하고 청원인을 상대하는 자리였다. 집안은 재산과 인맥을 활용해 그가 첫 선거에서 손쉽게 이기게 했다. 그는 타고난 정치인일 뿐 아니라 일꾼이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연장마다 이름을 아는 장인들에게서 영감을 받은 그는 주요 유권자들의 이름뿐 아니라 그들의 땅 크기와 사업과 필요까지 아는 습관을 길렀다. 그 필요는 폴리스와 국가에 무엇이 좋은가라는 스토아적 의미가 아니라 날것의 정치적 의미였다.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 이해관계는 어디서 맞는가. 그는 분명 유능한 정치인이었고 한 세대 최고였지만, 디오게네스나 안티파트로스나 포시도니오스와는 아주 다른 나침반으로 움직였다. 기원전 75년 공직에 자리 잡은 그는 시칠리아의 세금 징수 · 관리 책임자로 배치되었다. 행정에 쉽게 능숙해졌지만, 당대의 포퓰리스트들과 달리 고급 문화와 철학을 사랑했다. 그는

시라쿠사에서 거의 150년 된, 버려지고 풀이 무성한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을 찾아낸 이야기를 들려주며, 특유의 자기중심적 문체로 '아르피눔 사람'이 짚어 주지 않았다면 그리스의 이름난 도시가 가장 뛰어난 시민의 무덤을 몰랐을 것이라고 자신을 칭찬한다. 지금 들어도 어색한 자화자찬이 당시에는 어떻게 들렸을까. 시칠리아는 경유지일 뿐이었고, 후대 전기 작가들이 말하는 필로독시아와 필로티미아, 곧 신탁이 경계하라 한 명성과 명예에 대한 사랑을 채워 주었다. 원로원 의원이 되려고 맡은 자리였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 기원전 71년 그는 시칠리아 시민들이 베레스를 상대로 낸 갈취 소송의 검사를 맡았다. '관직의 사다리(cursus honorum)'의 다음 단계, 곧 공공질서를 규제하고 집행하는 조영관(aedile) 자리에 기원전 70년 오르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 것이다. 그는 50일 동안 고된 조사를 벌여 방대한 문서 증거를 들고 로마로 돌아왔다.

어법

- **It was said that an oracle had warned Cicero early to let his conscience guide his life, not the opinions of the crowd** : It was said that ~ = ~라고 전해졌다(전언). warn + O + to V. let + O + 원형(guide). not the opinions ~ = his conscience와 대비되는 let의 목적어.
- **for someone as driven as Cicero, such a warning was impossible to heed** : 난이 형용사 impossible + to V: heed의 목적어(such a warning)가 문장 주어로 올라간 구조(= it was impossible to heed such a warning). 변형 → such a warning was impossible to heed it은 오답.
- **Seneca would later write of the importance of choosing oneself "a Cato"** : choose + 간접목적어(oneself) + 직접목적어(a Cato) = 자신에게 ~를 골라 주다. 전치사 of 뒤 동명사.
- **Instead of Cato, Cicero had, in early life, chosen Marius, which is a little like choosing Richard Nixon or Vladimir Putin as one's lodestar** : had chosen = 과거완료(이야기 시점 이전). 계속적 용법 which = 앞 절 전체(마리우스를 고른 일). 전치사 like 뒤 동명사 choosing.
- **Having checked all the boxes by the end of his twenties, it was time for Cicero to begin his political ascent** : 완료 분사구문인데 주절 주어가 it이어서 의미상 주어(Cicero)와 어긋나는 현수 분사다. 실제 의미상 주어는 for Cicero. It is time for A to V = A가 ~할 때다.
- **Inspired by craftsmen who knew the names of each of their tools or instruments, Plutarch tells us, Cicero actively cultivated the habit of knowing not only the names of all of his eminent constituents, but the sizes of their estates** : 과거분사 분사구문(영감을 '받은' 쪽 = Cicero). Plutarch tells us = 삽입절. each of + 복수 명사. not only A but (also) B.
- **But he operated by a compas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Diogenes or Antipater or Posidonius** : that = 앞의 a compass를 대신하는 대명사(같은 명사 반복 회피). 형용사구 quite different from ~가 compass를 뒤에서 꾸민다.
- **would have been ignorant of the tomb of its one most ingenious citizen, had not a man of Arpinum pointed it out** : 가정법 과거완료. had not + S + p.p. = if a man of Arpinum had not pointed it out(if 생략 도치). 주절 would have been. its = 그리스의 그 도시(시라쿠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oracle	신탁	prophecy	—
conscience	양심	moral sense	—
heed	(경고를) 따르다	obey, mind	ignore
lodestar	북극성, 지침	guiding star	—
ascent	상승	rise	descent
eligible	자격이 있는	qualified	ineligibl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everage (v.)	활용하다	exploit, use	—
handily	손쉽게	easily	narrowly
constituent	유권자	voter	—
ensconced	자리 잡은	settled	—
egotistical	자기중심적인	self-centered	modest
sated	만족한	satisfied	unsatisfied
backbreaking	몹시 고된	grueling	easy

내용 일치 신탁의 경고 = 군중이 아니라 양심을 따르라('전해지는' 말) · 세네카의 '카토' = 자신을 재는 잣대 · 첫 본보기 = 마리우스 · 30세 = 재무관 출마 자격('질문하는 사람' · 실제로는 법 기초와 청원 응대) · 장인 비유 = 플루타르코스 · 기원전 75년 시칠리아(세금 징수 · 관리) ·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시라쿠사, 거의 150년) · 기원전 71년 베레스 사건 검사 → 기원전 70년 조영관 · 50일 조사. **밑줄 의미** choosing oneself "a Cato" = 자신을 비추어 재고 바로잡을 본보기를 고르는 일 / Richard Nixon or Vladimir Putin as one's lodestar = 야망과 권력의 화신을 삶의 지침으로 삼은 잘못된 선택 / philodoxia and philotimia = 명성과 명예에 대한 사랑(신탁이 경계하라 한 것).

> **한 줄 요약** 양심을 따르라는 경고를 듣고도 마리우스를 본보기로 삼은 키케로는 유권자의 필요까지 외우는 유능한 정치인이 되었고, 명성을 좇아 베레스 사건으로 나아갔다.

12-4 두 번 이긴 재판, 사치를 좇은 사람 90쪽 ¶1 ~ 91쪽 ¶1

원문 위치 원서 90쪽 ¶1 ~ 91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0쪽 ¶1 둘째 문장	forty million sesterces during his three years	숫자 — 서답형 후보
▲	90쪽 ¶1 셋째 문장	It is this man's case that will determine whether	강조구문 + whether절
▲	90쪽 ¶1 다섯째 문장	Cicero knew the jury had been bribed, and yet he somehow secured	과거완료 수동 + and yet
◆	90쪽 ¶1 여섯째 문장	he was doubly victorious	밑줄 의미: 유죄 판결 + 조영관
★	90쪽 ¶3 둘째 문장	had a double motive	빈칸·요지 1순위
◆	90쪽 ¶3 셋째 문장	with more than half an eye on what it could do for him	밑줄 의미: 늘 자기 이익을 곁눈질
●	90쪽 ¶4 첫 문장	indifferent to wealth and status	반전 후보 → devoted to
▲	90쪽 ¶4 둘째 문장	As much as Cicero respected them, he could not abide by	As much as = ~이긴 하지만(양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0쪽 ¶4 일곱째 문장	nine villas ... Formiae ... Tusculum ... Sulla	숫자·지명 — 서답형 후보
●	90쪽 ¶4 아홉째 문장	had rejected bequests offered to him	반전 후보 → accepted
◆	90쪽 ¶4 열한째 문장	almost a professional son	밑줄 의미 1순위
★	90쪽 ¶5 첫 문장(인용)	more than twenty million sesterces in bequests	숫자 — 내용 일치 후보
▲	90쪽 ¶5 셋째 문장	could not have been too repulsed ..., for he too would leave	could not have p.p. + 이유 접속사 for
▲	91쪽 첫 줄 셋째 문장	he did not quite realize what they would cost him until he got them	not ~ until(~하고서야 비로소)
●	91쪽 ¶1 둘째 문장	he would accept no bribes	반전 후보 → took bribes
▲	91쪽 ¶1 넷째 문장	this stand is easier to take when you inherit millions	난이 형용사 + to V / 일반 주어 you

내용

극적인 사건이었다. 베레스는 시칠리아에서 보낸 3년 동안 4천만 세스테르티우스를 훔쳤고, 키케로에게는 증거가 있었다. 그는 모두 진술에서, 이 사건이 원로원 의원들로 이루어진 법정에서 죄 많고 부유한 사람의 유죄 판결이 가능한지를 가를 것이며, 끔찍한 범죄와 막대한 재산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는 피고가 무죄가 된다면 가장 부끄러운 설명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심원단이 매수되었음을 알았지만 그는 어떻게든 유죄 판결을 얻어 냈고, 이제 조영관 자리까지 쥐어 두 번 이겼다. 공정과 진실이라는 스토아의 덕, 정의에게는 대단한 날이었다. 그러나 그가 그 때문에 싸웠을까. 그것이 중요할까. 키케로의 삶을 관통하는 주제는 움직임, 곧 앞으로 그리고 위로의 움직임이다. 베레스 사건 같은 중요한 부패 재판의 승리를 포함해 그가 한 거의 모든 일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었다. 그는 자주 옳은 일을 했지만, 그 일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 줄지에 절반 넘게 눈을 둔 채 했다. 딱히 스토아적이지는 않았지만 효과는 있었다. 클레안테스와 제논 이래 스토아는 대체로 부와 지위에 무관심했다. 키케로는 그들을 존경했지만 그런 단호함을 따를 수 없었다. 사치를 삼가기는커녕 좇았다. 그는 먼저 안티파트로스의 조언대로 훌륭하고 부유한 여인 테렌티아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물려받은 재산과 결혼으로 얻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결국 그는 포르미아이의 해변 휴양지, 그리고 가장 아낀, 한때 술라 자신의 것이었던 투스쿨룸의 별장을 포함해 아홉 채의 별장을 갖게 된다. 그는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방법으로도 큰 재산을 모았다. 클레안테스는 제논의 지시에 따라 자신에게 들어온 유증을 거절했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훗날 그렇게 한다. 반면 키케로는 거의 '직업적 아들'처럼, 사람들의 재산에 파고들어 언젠가 자신에게 돈을 남기게 하는 사람으로 보였다. 말년에 그는 유증으로 2천만 세스테르티우스가 넘게 받았다고 밝히며, 친구가 아닌 사람이 자신을 상속인으로 삼은 적은 없으니 그 이익에는 얼마간의 슬픔이 따랐다고 덧붙였다. 스승 디오도토스도 이 관행을 그리 꺼리지는 않았던 듯하다. 그 역시 기원전 60년 키케로의 집에서 죽으며 모든 것을 그에게 남겼다. 그래도 이상하게 느끼지 않기는 어렵다. 그는 친구에게 정원과 서재가 있으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고 썼지만, 그의 일부는 그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많은 사람처럼 그도 부와 명성이 필요하다고 믿은 듯했고, 그것을 얻고 나서야 대가를 깨달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다. 그래도 그는 부패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너무나 많은 로마 정치인과 달리 뇌물을 받지 않았고 변론 수임료도 받지 않았다. 물론 수백만을 물려받았다면 그런 태도를 취하기가 더 쉽다.

어법

- **It is this man's case that will determine whether, with a court composed of Senators, the condemnation of a very guilty and very rich man can possibly occur** : It is ~ that 강조구문(주어 this man's case 강조). whether절 = determine의 목적어. composed of = '~로 구성된'(과거분사 후치 수식).
- **If, therefore, he is acquitted, it will be impossible to imagine any explanation but the most shameful** : 조건의 부사절은 미래 대신 현재(is acquitted). 가주어 it – 진주어 to imagine. but = ~을 제외하고(전치사).
- **Cicero knew the jury had been bribed, and yet he somehow secured a conviction** : knew 뒤 that 생략. had been bribed = 과거완료 수동(알기 전에 이미 매수됨). and yet = 그런데도(역접).
- **He often did the right thing, but he did it with more than half an eye on what it could do for him** : did it = did the right thing. with + 명사 + on ~ = ~에 눈을 둔 채(부대상황). what it could do = on의 목적어인 관계대명사절, it = the right thing.
- **As much as Cicero respected them, he could not abide by this firmness** : 문두의 As much as + S + V = ~이긴 하지만(양보). abide by = (규칙 · 원칙을) 따르다.
- **Cicero amassed a large fortune through what seems like unethical means** : 전치사 through의 목적어 = what절. what seems like ~ = ~처럼 보이는 것 → 저자가 단정하지 않고 '그렇게 보인다'고만 말한다.
- **a striver who wormed his way into people's estates so they might one day leave him money** : worm one's way into = 슬금슬금 파고들다. so (that) S might V = ~하도록(목적). leave + 간접목적어(him) + 직접목적어(money).
- **His Stoic teacher Diodotus could not have been too repulsed by this practice, for he too would leave everything to Cicero** : could not have p.p. = ~했을 리 없다(과거 추측). 접속사 for = 왜냐하면(근거를 덧붙임). would = 과거에서 본 미래.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esterce	세스테르티우스(로마 화폐)	—	—
acquit	무죄 방면하다	clear	convict
palliate	(죄를) 가볍게 보이게 하다	excuse	aggravate
conviction	유죄 판결	condemnation	acquittal
motive	동기	reason	—
indifferent	무관심한	unconcerned	devoted
abstain from	삼가다	refrain from	indulge in
dowry	지참금	marriage portion	—
bequest	유증(유언으로 남긴 재산)	legacy	—
repulsed	역겨워하는	disgusted	attracted
content (adj.)	만족하는	satisfied	discontented
bribe	뇌물	kickback	—

내용 일치 베레스 = 시칠리아 3년 · 4천만 세스테르티우스 · 배심원 매수를 알고도 유죄 판결 · 조영관까지 = 두 번의 승리 · 두 가지 동기 · 결혼 = 테렌티아(안티파트로스의 조언) · 별장 아홉 채(포르미아이 해변 휴양지 · 술라의 것이던 투스쿨룸 별장) · 유증 2천만 세스테르티우스 이상 · 디오도토스 = 기원전 60년 키케로의 집에서 죽으며 전 재산을 남김 · 뇌물 · 수임료를 받지

않음. **밑줄 의미** doubly victorious = 재판에서 이기고 조영관 자리도 얻음 / almost a professional son = 상속을 노리고 남의 재산에 파고드는 사람(유증을 거절한 클레안테스 · 마르쿠스와 대비).

> **한 줄 요약** 베레스를 단죄해 정의와 출세를 함께 얻은 키케로는 늘 두 가지 동기로 움직였고, 스토아와 달리 부와 유증을 좇았지만 뇌물만은 받지 않았다.

12-5 '새로운 사람'의 집정관직과 카틸리나 91쪽 ¶2 ~ 92쪽 ¶3

원문 위치 원서 91쪽 ¶2 ~ 92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1쪽 ¶2 첫 문장	at age thirty-nine in 67 BC ... at age forty in 66 BC	숫자 — 서답형 · 내용 일치 후보
▲	91쪽 ¶2 첫 문장	the next office to be gained for Cicero was praetor, which he ran for and won	수동형 to부정사 / 전치사 for의 목적어 which
▲	91쪽 ¶2 첫 문장	due in no small part to his support of Pompey	due to + 강조(in no small part)
▲	91쪽 ¶2 셋째 문장	The Senate chairman and commander of the Roman army, the role of consul was	문두 동격 명사구
★	91쪽 ¶2 넷째~다섯째 문장	only ten novi homines ... Between 93 and 43 BC, Cicero would be the only one	숫자 — 내용 일치 1순위
▲	91쪽 ¶3 첫 문장	would not be uncontested	이중 부정(= would be contested)
★	91쪽 ¶3 둘째 문장	Catiline and Antonius	인물 — 서답형 후보
▲	91쪽 ¶3 다섯째 문장	whether Catiline had been part of a plot before is up for debate	whether절 주어 + 단수 동사
◆	91쪽 ¶3 다섯째 문장	ready to burn the whole system down	밑줄 의미: 체제 전체를 뒤엎으려 함
◆	91쪽 ¶4 여섯째 문장	concordia ordinum, the concord of the classes	밑줄 의미: 실은 폭발을 막겠다는 약속
▲	91쪽 ¶4 일곱째 문장	could not have ranked high ..., even if he had been taught	could not have p.p. + even if 과거완료
★	91쪽 ¶5 첫 문장	to ten years of exile	숫자 — 내용 일치 후보
▲	91쪽 ¶5 다섯째 문장	letters purporting to show Catiline's scheme	현재분사 후치 수식
▲	92쪽 ¶1 둘째 문장	Catiline, who was in the audience for this harangue, meekly attempted	삽입 관계절 + 본동사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2쪽 ¶3 첫 문장	proving beyond a doubt that Cicero was right	결과의 분사구문
▲	92쪽 ¶3 셋째 문장	how serious the threat actually was remains in doubt	간접의문문 주어 + 단수 동사

내용

재무관과 조영관을 거친 키케로가 다음으로 노린 자리는 법무관(praetor)이었다. 그는 폼페이우스를 지지한 덕을 적잖이 보아 기원전 67년 서른아홉 살에 당선되었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젊은 나이인 마흔 살에 기원전 66년 직무를 맡았다. 이것 역시 마지막이자 가장 귀한 자리, 특히 '새로운 사람'에게 귀한 집정관으로 가는 발판이었다. 원로원 의장이자 로마군 사령관인 집정관은 거의 전적으로 최고 명문가의 몫이었다. 역사가 제라드 레이버리가 지적하듯 공화정 마지막 150년 동안 집정관에 오른 '새로운 사람'은 열 명뿐이었고, 기원전 93년부터 43년까지는 키케로가 유일했다. 경쟁자는 카틸리나와 안토니우스였다. 키케로는 강점을 살려 '살인적이고 부패한' 카틸리나를 맹렬한 연설로 공격하며, 원로원과 민중에게 공화정을 찬탈하려는 음모가 무르익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것으로 그는 집정관이 되었다. 그러나 대가는 컸다. 카틸리나가 이전에도 음모에 가담했는지는 논란거리지만, 키케로의 비방을 받은 뒤 그는 복수를 위해 체제 전체를 불태울 각오가 되어 있었다. 키케로는 기원전 63년 경제 위기 한복판에서 취임했다. 동방 무역로는 적들에게 막혔고, 실업률이 높았으며, 불황이 모든 계층을 덮쳤다. 그는 '계층 간의 화합(콘코르디아 오르디눔)'을 약속했지만, 실제 뜻은 모든 것이 폭발하지 않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포시도니오스나 디오도토스에게 공정함의 이로움과 덕을 배웠다 해도, 실제 공정함은 그의 관심사에서 높은 순위였을 리 없다. 그는 선거 뇌물의 처벌을 10년 추방으로 높이는 법을 통과시켰다. 좋은 법이었지만, 오로지 민중을 위한 것이었을까, 정적을 겨냥한 수였을까. 카틸리나는 그 법이 자신을 겨냥했다고 믿고 키케로와 원로원의 동맹들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 한 유력한 로마인이 카틸리나의 음모를 보여준다는 편지들을 가져오자, 키케로는 원로원을 소집해 일생일대의 연설을 했다. "카틸리나여, 언제까지 우리의 인내를 악용하려는가." 그는 이 시대와 그 원칙이 부끄럽다고 외치며 정적의 처형을 요구했다. 청중석의 카틸리나는 기죽은 채 답하려 했지만 이 뛰어난 연설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는 로마 엘리트주의의 상투적인 말에 기대어 키케로가 대단한 집안 출신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자수성가한 사람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통하지 않았다. 그는 기다리던 자기 군대로 도망쳤고, 이로써 키케로가 옳았음이 의심의 여지 없이 드러났다. 카틸리나는 반역자이자 반란자였다. 그러나 위협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동시대인과 역사가들은 늘 권력과 주목을 좇던 키케로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나라의 위험을 크게 부풀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

어법

- **the next office to be gained for Cicero was praetor, which he ran for and won at age thirty-nine in 67 BC** : to be gained = office를 꾸미는 수동형 to부정사(얻어'질' 자리). which는 ran for(전치사 for의 목적어)와 won의 목적어를 함께 맡는다.
- **due in no small part to his support of Pompey** : due to = ~ 때문에. in no small part = 적잖이(이중 부정으로 강조)가 due와 to 사이에 끼었다.
- **The Senate chairman and commander of the Roman army, the role of consul was almost exclusively reserved for Rome's most elite families** : 문두 명사구 = 주어 the role of consul의 동격. be reserved for = ~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수동).
- **Cicero's path to the top would not be uncontested** : not + un- = 이중 부정(= would be contested, 경쟁이 있을 것이다). would = 과거에서 본 미래.
- **whether Catiline had been part of a plot before is up for debate** : whether절(~인지 아닌지)이 주어 → 단수 동사 is. be up for debate = 논란거리다. 원서는 음모 가담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 **Actual fairness could not have ranked high on his list of concerns, even if he had been taught its benefits, its virtue, by Posidonius or Diodotus** : could not have p.p. = ~였을 리 없다(과거 추측). even if + 과거완료 = 설령 ~했더라도. teach + 사람 + 내용의 수동: he had been taught its benefits.
- **When a prominent Roman delivered letters purporting to show Catiline's scheme** : purporting to show = '~을 보여 준다고 하는'(현재분사 후치 수식). purport to V = ~라고 내세우다 → 편지가 진짜인지 단정하지 않는 표현.
- **But how serious the threat actually was remains in doubt** : 간접의문문 how serious S was(형용사가 how와 함께 앞으로)가 주어 → 단수 동사 remains. 변형 → how serious was the threat remains는 오답.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aunching pad	발판	springboard	—
exclusively	오로지	solely	partly
uncontested	경쟁 없는	unopposed	contested
blistering	맹렬한	scathing	mild
usurp	찬탈하다	seize	—
slander	비방	defamation	praise
recession	불황	downturn	boom
concord	화합	harmony	discord
assassinate	암살하다	murder	—
convene	소집하다	assemble	dismiss
harangue	열변, 장광설	tirade	—
meekly	기죽은 채	timidly	boldly
exaggerate	부풀리다	overstate	understate

내용 일치 법무관 = 기원전 67년 39세 당선, 66년 40세 취임(법정 최연소) · 폼페이우스 지지 · 집정관 = 원로원 의장 · 군사령관 · 마지막 150년 새로운 사람 10명, 93~43 BC는 키케로뿐(레이버리) · 경쟁자 = 카틸리나 · 안토니우스 · 기원전 63년 취임(경제 위기) · 선거 뇌물 처벌 = 10년 추방 · 위협의 심각성 = 여전히 의문(과장했을지도). **지칭** 91쪽 ¶3 he was ready to burn = Catiline / ¶5 aimed at him = Catiline / 92쪽 ¶1 his enemy = Catiline, He pointed out의 He = Catiline / 92쪽 ¶3 he fled = Catiline.

> **한 줄 요약** '새로운 사람'으로 집정관에 오른 키케로는 일생일대의 연설로 카틸리나를 몰아냈지만, 그 위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지금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12-6 재판 없는 처형, '국부'의 자화자찬 92쪽 ¶4 ~ 93쪽 ¶2

원문 위치 원서 92쪽 ¶4 ~ 93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2쪽 ¶4 첫 문장	The Senate, trusting in Cicero, bestowed on him nearly dictatorial powers	삽입 분사구 + bestow A on B 어순
▲	92쪽 ¶4 둘째 문장	like many empires believing they faced an existential threat	현재분사 후치 수식
★	92쪽 ¶4 셋째 문장	Cato, the Stoic, urged Cicero to exact the full measure of the law	인물 — 13장 연결
▲	92쪽 ¶5 둘째 문장	He hesitated, but not for moral reasons.	생략 구문(but he hesitated not for)
▲	92쪽 ¶5 넷째 문장	interpreting a sacrifice ... as a sign that her husband must wield	interpret A as B / 동격 that
●	92쪽 ¶5 넷째 문장	an unexpected but decisive vote	반전 후보 → indecisive
★	92쪽 ¶6 첫 문장	put to death without trial by his order	내용 일치 1순위(93쪽 ¶3 추방 사유)
★	92쪽 ¶6 둘째 문장	"Father of His Country"	서답형 후보
▲	92쪽 ¶7 첫 문장	What remained untouched through the ordeal was	what절 주어 + 단수 동사
◆	92쪽 ¶7 넷째 문장(인용)	clung to him like fate	밑줄 의미: 떨칠 수 없는 버릇
▲	92쪽 ¶8 둘째 문장	tried to induce Posidonius to cover his consulship	induce + O + to V
★	92쪽 ¶8 셋째 문장	a letter "the size of a book" to Pompey in 62 BC	인물·연도 — 서답형 후보
◆	92쪽 ¶8 여섯째 문장	History, he thought, was in his debt.	밑줄 의미: 역사가 자신에게 빚졌다는 자만
▲	92쪽 ¶9 둘째 문장	too sensitive, too vain ..., to become a great leader of men	too ~ to V
▲	92쪽 ¶9 셋째 문장	saw both sides ... too vividly to enable him to make up his mind	too ~ to V + enable + O + to V
◆	93쪽 ¶2	get nearly everything he wanted . . . and come to regret it	요지 후보(10장 연결)

내용

원로원은 키케로를 믿고 그 위협을 진압할 거의 독재에 가까운 권한을 주었다. 제도의 존립이 위협받는다고 믿은 많은 제국처럼, 공화정과 키케로 자신도 그 압력 속에서 뒤틀렸다. 스토아인 카토는 이 범죄자들에게 법의 최대치를 집행하라고 키케로를 재촉했다. 그것이 정의라고 했다. 절대 권력을 손에 쥔 키케로는 망설였지만, 도덕적인 이유에서가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자기 평판을 생각했다. 뜻밖에 결정적인 표를 던진 사람은 아내 테렌티아였다. 그녀는 다른 몇몇 사람을 겁먹게 한 제사를, 남편이 주어진 권력을 휘둘러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음모자들은 그의 명령으로 재판 없이 처형되었고, 그들을 따르던 군대에서도 수천 명이 더 죽었다. 원로원은 감사의 뜻으로 그에게 '국부(Father of His Country)'라는 칭호를 주지만, 극단적인 조치와 수많은 죽음은 남은 생애 내내, 그리고 역사 내내 그를 따라다닌다. 이 시련 속에서도 손상되지 않은 것은 자기 운명과 위대함에 대한 확신이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그는 며칠 만에 자기 업적을 빛내는 운동을 시작했다. 원로원 회의든 공공 집회든 법정이든 끝없는 되풀이를 듣지 않고는 참석할 수 없었고, 이 불쾌한 버릇은 운명처럼 그에게 들러붙었다. 어떤 공적과 칭찬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글로도 새기려 했다. 포시도니오스에게 쉰두 권짜리 대작 역사서에 자신의 집정관 시절을 다뤄 달라고 청했고, 포시도니오스가 거절하자 기원전 62년 폼페이우스에게 자기 업적에 관한 '책만 한' 편지를 보냈다. 폼페이우스는 어깨를 한 번 으쓱했을 뿐이다. 키케로는 굴하지 않았다. 자신이 나라를 구했다고 확신했고, 역사가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했다. 역사가 H. J. 해스켈은 그의 모순을 잘 짚는다. 그는 재능 있고 뛰어났으며 모든 학파의 가장 지혜로운 철학에 젖어 있었지만, 너무 예민하고 허영심 많고 개인적 감정에 휘둘려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었다. 때로는 공적 문제의 양면을 너무 생생하게 보아 마음을 정하지 못했고, 때로는 증오가 발동하면 무모하게 돌진했다. 키케로는 스토아가 감정에 관해 경고한 것을 알았지만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감정은 거듭 돌아와, 제논 이래 스토아가 경고해 온 바로 그 고통을 불렀다. 포시도니오스의 글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키케로는 원하는 것을 거의 다 얻고 그것을 후회하게 된다.

어법

- **The Senate, trusting in Cicero, bestowed on him nearly dictatorial powers to put down the threat** : trusting in ~ = 주어 The Senate 뒤에 삽입된 분사구(이유). bestow A on B에서 목적어 A(nearly dictatorial powers)가 길어 on him 뒤로 갔다. to put down = 목적의 to부정사.
- **Cato, the Stoic, urged Cicero to exact the full measure of the law from these criminals** : urge + O + to V = ~에게 …하라고 재촉하다. exact A from B = B에게 A를 강제로 집행하다(여기서 exact는 동사).
- **He hesitated, but not for moral reasons.** : but (he hesitated) not for ~ — 반복되는 주어 · 동사를 생략했다. 망설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 이유를 부정한다.
- **interpreting a sacrifice that had frightened some others as a sign that her husband must wield the power that had been given to him** : interpret A as B. 첫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a sacrifice), 둘째 that = a sign의 내용을 밝히는 동격 접속사, 셋째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the power, 수동 had been given).
- **What remained untouched through the ordeal was Cicero's sense of his own destiny and greatness** : What절(~한 것)이 주어 → 단수 동사 was. remain + 과거분사 보어 untouched.
- **He tried to induce Posidonius to cover his consulship in his great fifty-two-volume history** : induce + O + to V = ~하도록 설득하다. fifty-two-volume = 하이픈으로 이은 복합 형용사라 volume이 단수. try to V = 하려고 애쓰다(실제로는 실패).
- **"he was too sensitive, too vain, too dominated by personal feeling, too open to impression, to become a great leader of men"** : too ~ to V =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too가 네 번 반복되고 to become 하나가 모두를 받는다.

- **At times he saw both sides of public questions too vividly to enable him to make up his mind, close it to all doubts, and drive ahead** : too + 부사 + to V. enable + O + to V에서 to 뒤 원형 make up · close · drive가 병렬. close it의 it = his mind.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bestow	수여하다	confer	withdraw
dictatorial	독재적인	autocratic	democratic
existential	존립에 관한	fundamental	—
warp	뒤틀리다	distort	straighten
decisive	결정적인	conclusive	indecisive
wield	(권력을) 휘두르다	exercise	—
burnish	윤을 내다, 빛내다	polish	tarnish
enshrine	소중히 새기다	preserve	—
induce	설득하다	persuade	dissuade
undeterred	굴하지 않는	undaunted	discouraged
vain	허영심 많은	conceited	modest
recklessly	무모하게	rashly	cautiously
rein in	억제하다	restrain	unleash

내용 일치 원로원 = 거의 독재적 권한 · 카토 = 법의 최대치를 재촉 · 망설인 이유 = 도덕이 아니라 평판 · 결정적 표 = 아내 테렌티아(제사의 해석) · 음모자 = 재판 없이 처형, 수천 명 더 죽음 · 칭호 = '국부' · 포시도니오스 = 쉰두 권 역사서에 집정관 시절을 써 달라는 청을 거절 · 기원전 62년 폼페이우스에게 책만 한 편지 → 어깨만 으쓱 · 해스켈의 평. **밑줄 의미** clung to him like fate = 자랑하는 버릇이 떨칠 수 없게 따라다님 / History ... was in his debt = 나라를 구한 자신에게 역사가 갚아야 한다는 자만 / get nearly everything he wanted ... and come to regret it = 야망을 이루고 그 대가로 후회함(포시도니오스의 글 속 인물들처럼).

> **한 줄 요약** 절대 권력으로 음모자들을 재판 없이 처형한 키케로는 '국부'라 불리며 끝없이 업적을 자랑했지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원하는 것을 얻고도 후회하게 된다.

12-7 추방, 서재, 그리고 루비콘 93쪽 ¶3 ~ 94쪽 ¶3

원문 위치 원서 93쪽 ¶3 ~ 94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3쪽 ¶3 첫 문장	the high-water mark of his life	밑줄 의미: 인생의 정점
●	93쪽 ¶3 셋째 문장	the gratitude of the crowd was not enduring	반전 후보 → lasting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3쪽 ¶3 넷째 문장	Caesar, Pompey, and Crassus ... Triumvirate in 60 BC	인물·연도 — 서답형 후보
▲	93쪽 ¶3 다섯째 문장	passing a proscription against him for having condemned citizens	분사구문 + for 완료 동명사
▲	93쪽 ¶4 첫 문장	It was Seneca who observed how quickly time and fate would afflict	강조구문 + 간접의문문
▲	93쪽 ¶4 첫 문장	"everything that a victorious Catiline would have done"	주어에 담긴 가정(이겼다면)
★	93쪽 ¶5 넷째 문장	On Oratory (56 BC) ... Rutilius Rufus	9장 연결 · 내용 일치 후보
▲	93쪽 ¶5 넷째 문장	at precisely the moment good rhetoric could have saved him	the moment (when) + could have p.p.
▲	93쪽 ¶5 다섯째 문장	Worried about the future of Rome, he wrote two works	과거분사 분사구문
★	93쪽 ¶6	Character. Commitment. Purpose.	빈칸 1순위
★	93쪽 ¶7 첫 문장	In 51 BC ... Cilicia	연도·지명 — 내용 일치 후보
▲	93쪽 ¶8 넷째 문장	slower burning than Cicero's, less self-aggrandizing, but far more aggressive	비교급 병렬 + 소유격 단독
▲	93쪽 ¶8 여섯째 문장	Pompey—whom Cicero had praised ..., and whom his teacher Posidonius had tried to instruct	목적격 whom 병렬 삽입
◆	94쪽 ¶1 여섯째 문장	the victory was Pyrrhic	밑줄 의미 1순위
▲	94쪽 ¶2 둘째 문장	Never before had Cicero's talents ... been more needed	부정어 도치 + 과거완료 수동
●	94쪽 ¶3 둘째 문장	inexplicably turned it down	반전 후보 → accepted

내용

집정관직과 짧은 위기 지도력이 그의 인생의 정점이었고, 그 뒤로는 계단식 내리막이 이어졌다. 나라는 다음으로 넘어갔고, 신탁이 예언한 대로 군중의 감사는 오래가지 않았다. 기원전 60년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가 삼두정치를 이루어 키케로에 맞서는 적의 전선이 생겼다. 기원전 58년의 다음 집정관은 재판 없이 시민을 사형에 처했다는 이유로 키케로를 겨냥한 처벌령(proscription)을 통과시켰다. 키케로는 로마를 떠나 망명해야 했고 재산은 파괴되었다. 세네카는 시간과 운명이 얼마나 빨리, 카틸리나가 이겼다면 했을 모든 일을 키케로에게 안겼는지 지적했다. 추방은 1년 뒤 철회되었지만 변화, 아니 해체의 기운이 감돌았다. 키케로는 대체로 도시를 멀리하고 될 수 있는 한 글쓰기와 철학으로 돌아갔다. 쿠마이의 별장 근처, 한때 스토아 스승 블로시우스의 집이었던 파우스투스 술라의 서재에서 책을 탐독했다. 『연설가론』(기원전 56년)에서는 카토의 수사를 루틸리우스 루푸스의 수사와 견주며, 고발자들 앞에서 스토아식 간결함을 지킨 루푸스의 결정이 좋은 수사가 그를 구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그를

저버렸다고 보여 주었다. 로마의 앞날을 걱정한 그는 바빌론의 디오게네스와 파나이티오스에 기댄 『국가』와 『법률』도 썼다. 그러나 많은 역사가와 오늘날의 독자들처럼, 그는 눈앞에 있는 것, 곧 이 인물들이 살아 낸 삶을 놓치고 있었다. 그 네 스토아를 관통하는 공통의 실, 성품과 헌신과 목적을 놓치고 있었다. 기원전 51년 로마 정쟁에서 멀리 떨어진 킬리키아 총독 자리를 받아 평판을 다시 빛냈지만, 그것은 운명이 그와 로마에 마련해 둔 혼돈 앞의 짧은 휴식일 뿐이었다. 기원전 49년 초, 그의 옛 친구이자 동료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넜다. 카이사르의 야망은 키케로의 것보다 천천히 타오르고 덜 자기과시적이었지만 훨씬 공격적이고 굽힘이 없었으며, 갈리아에 있는 무적의 군대가 만든 부가 뒤를 받쳤다. 내전이 이어졌고, 기원전 48년 9월 무렵에는 키케로가 첫 주요 정치 연설에서 칭송했고 스승 포시도니오스가 덕을 가르치려 했던 폼페이우스가 죽었다. 이제 누가 카이사르를 막을 수 있었을까. 철학을 공부한 뛰어난 연설가에게 결정적 순간이 왔다고 생각할 법하지만, 야심가 키케로는 그 순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돌이켜 보면 그는 엉뚱한 위기에 자신을 소진했다. 카틸리나 음모를 역사 앞에서 연기할 순간이라 여겨 너무 일찍, 너무 가혹하게 움직였고, 명성은 얻었지만 그것은 피로스의 승리였다. 이제 공화정은 정말 위태로웠고 설득하고 군중을 움직이는 그의 재능이 이토록 필요한 적이 없었지만, 그는 귀 기울일 청중을 모을 수 없었다. 권력도 거의 없어 무력했고, 기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니면 겁쟁이였을까. 공화정 편에서 군대 지휘권을 제안받았지만 그는 설명할 수 없게도 거절했다.

어법

- **The next consul, in 58 BC, turned openly against Cicero, passing a proscription against him for having condemned citizens to death without a trial** : passing ~ = 부연의 분사구문. for having p.p. = ~했다는 이유로(완료 동명사: 처벌보다 앞선 일). condemn A to death = A에게 사형을 선고하다.
- **It was Seneca who observed how quickly time and fate would afflict on Cicero "everything that a victorious Catiline would have done."** : It was ~ who 강조구문(주어 Seneca). how quickly ~ = observed의 목적어인 간접의문문. a victorious Catiline = '카틸리나가 이겼다면'이라는 가정을 담은 주어 → would have done.
- **showing how Rufus's decision to maintain his Stoic brevity in the face of his accusers failed him at precisely the moment good rhetoric could have saved him** : how절의 주어 Rufus's decision(단수) → failed. decision to V. the moment 뒤 관계부사 when 생략. could have p.p. = ~할 수도 있었다(실제로는 아님).
- **Worried about the future of Rome, he wrote two works, Republic and Laws, which drew on the Stoics Diogenes of Babylon and Panaetius** : 과거분사 분사구문(= Because he was worried ~). two works와 Republic and Laws는 동격. draw on = ~에 기대다, ~을 바탕으로 하다.
- **In 51 BC, Cicero was awarded the governorship of Cilicia—a position well out of the fray of Roman politics** : be awarded + 명사 = ~을 받다(award + 사람 + 사물의 수동). 대시 뒤 명사구 = the governorship의 동격. out of the fray = 싸움에서 벗어나.
- **Caesar's ambition had been slower burning than Cicero's, less self-aggrandizing, but far more aggressive and unbending** : Cicero's = Cicero's ambition(명사 반복을 피한 소유격 단독). slower · less · more 비교급 셋이 병렬, far = 비교급 강조(훨씬).
- **We have, with the benefit of hindsight, the perspective to see that he had wasted himself on the wrong crisis** : have와 목적어 the perspective 사이에 부사구 삽입. to see = perspective를 꾸미는 형용사적 to 부정사. had wasted = 대과거(카틸리나 때 이미).
- **Never before had Cicero's talents—his ability to persuade, to move the crowd, to tell a story that would drive people to the barricades—been more needed** : 부정어 Never before가 문두 → had + 주어 + been p.p. 도치. 대시 사이 = talents의 동격 설명. 변형 → Never before Cicero's talents had been은 오답.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high-water mark	정점, 절정	peak	low point
enduring	오래가는	lasting	fleeting
proscription	처벌령, 공권 박탈	condemnation	—
repeal	철회하다	revoke	enact
dissolution	해체	disintegration	formation
steer clear of	피하다	avoid	approach
pore over	탐독하다	study closely	skim
brevity	간결함	conciseness	wordiness
respite	휴식, 유예	break, lull	—
self-aggrandizing	자기를 과시하는	self-glorifying	self-effacing
hindsight	지나고 나서 깨달음	retrospect	foresight
Pyrrhic	상처뿐인(승리)	costly	—
impotent	무력한	powerless	powerful
inexplicably	설명할 수 없게	mysteriously	understandably

내용 일치 삼두정치 = 기원전 60년(카이사르 · 폼페이우스 · 크라수스) · 기원전 58년 다음 집정관의 처벌령(사유 = 재판 없는 사형) · 추방은 1년 뒤 철회 · 파우스투스 술라의 서재(쿠마이 별장 근처, 한때 블로시우스의 집) · 『연설가론』 = 기원전 56년 · 『국가』 · 『법률』 = 바빌론의 디오게네스 · 파나이티오스 · 기원전 51년 킬리키아 총독 · 49년 초 루비콘 · 48년 9월까지 폼페이우스 사망 · 군 지휘권 거절. **밑줄 의미** the high-water mark = 집정관 시절이 인생의 최고점 / the victory was Pyrrhic = 카틸리나 사건으로 명성은 얻었지만 정작 결정적 위기에 쓸 힘을 잃은 상처뿐인 승리 / Character. Commitment. Purpose. = 네 스토아가 글이 아니라 삶으로 공유한 것.

> **한 줄 요약** 정점에서 내려온 키케로는 추방과 서재를 오가며 스토아를 글로 다뤘지만, 카이사르가 루비콘을 건넌 결정적 순간에는 힘도 용기도 내지 못했다.

12-8 카토는 용기를, 키케로는 생존을 94쪽 ¶4 ~ 95쪽 ¶3

원문 위치 원서 94쪽 ¶4 ~ 95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4쪽 ¶4 첫 문장	the Stoic who wrote less but lived the ideas	요지 1순위(키케로와 대비)
★	94쪽 ¶4 셋째 문장	By 46 BC … Cato committed suicide in Utica	연도·지명 — 서답형 후보
▲	94쪽 ¶4 넷째 문장	this Stoic he both admired and judged, but whose commitment to principles he lacked	관계대명사 생략절 + whose절 병렬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4쪽 ¶4 다섯째 문장	"accept the bridle"	밑줄 의미: 굴레를 받아들임 = 복종
★	94쪽 ¶5 첫 문장	only fifty words of the tribute survive	숫자 — 내용 일치 후보
▲	94쪽 ¶5 첫 문장	censored himself for fear of angering Caesar	for fear of -ing
◆	94쪽 ¶5 넷째 문장	Cicero believed in not getting killed.	요약 1순위
▲	94쪽 ¶6	as we should ask of all self-preserving compromises	ask A of B
◆	94쪽 ¶7 첫 문장	a kind of bridge between Greek and Latin philosophical thought	빈칸 후보
▲	94쪽 ¶7 셋째 문장	it wasn't the accomplishments of public office that made his glory, ... but what he set down	강조구문 not A but B
★	94쪽 ¶8 첫 문장	In 46 BC ... Stoic Paradoxes, dedicated to Marcus Brutus	연도·인물 — 서답형 후보
▲	94쪽 ¶8 둘째 문장	more a rhetorical exercise than a serious philosophical treatment	more A than B(B라기보다 A)
★	95쪽 인용	only the sage is truly free ... the wise person alone is rich	역설 5·6 — 내용 일치 후보
▲	95쪽 ¶1 둘째 문장	It was actually the counterintuitiveness ... that the Stoics leaned on	강조구문(목적어 강조)
▲	95쪽 ¶2 첫 문장	what hurt Cicero in politics ... suited him supremely well	what절 주어
◆	95쪽 ¶3 아홉째 문장	his foot-in-both-camps mentality	밑줄 의미: 양다리 걸치기

내용

싸울 각오가 된 사람은 카토뿐이었다. 글은 덜 썼지만 그 생각을 살아 낸 스토아였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카이사르가 득세한 기원전 46년, 카토는 우티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화정 대의의 영원한 순교자가 되었다. 키케로는 그를 기리는 추도문을 썼다. 존경하면서도 평가했고, 원칙에 대한 그 헌신만은 자신에게 없었던 이 스토아의 힘을 글로 담으려 했다. 플루타르코스의 표현대로 그는 로마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카이사르에게 굴복해 '굴레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추도문이 좋은 예다. 남은 것은 쉰 단어뿐이지만, 그가 카이사르와 그 지지자들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 스스로 검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두 사람 모두 옳은 것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키케로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겼다. 카토는 용기를 믿었고, 키케로는 죽지 않는 것을 믿었다. 그 선택으로 그는 몇 년의 삶을 얻었지만, 스토아라면 자기를 지키려는 모든 타협에 그러듯 "무엇을 대가로?"라고 물었을 것이다. 굴복과 형편 좋을 때만의 철학이 남긴 유일한 장점은, 살아남은 덕에 계속 글을 쓰며 특히 윤리학에서 그리스와 라틴 철학 사상을 잇는 다리 노릇을 했다는 점이다. 윤리학이라면 그는 스토아보다 나은 원천을 알지 못했다. 결국 그의 영광을 만든 것은 공직의 업적도 그가 산 방식도 아니라, 우리 시대까지 남은 스토아의 지혜를 글로 남긴 일이었다. 기원전 46년 그는 강한 스토아

성향을 지닌 마르쿠스 브루투스에게 바친 『스토아 역설』을 펴냈다. 진지한 철학적 논의라기보다 수사 연습에 가까운 이 책에서 그는 스토아의 주요 역설 여섯 가지를 다뤘다. 덕만이 유일한 선이다, 덕은 행복에 충분하다, 모든 덕과 악덕은 같다, 모든 어리석은 자는 미쳤다, 현자만이 참으로 자유롭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부유하다. 논리적 의미의 역설이 아니라 상식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의미의 역설이었고, 스토아는 바로 이 직관에 반하는 성격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키케로는 제논과 클레안테스와 아리스토 등이 남긴 이 화두를 붙들고 노는 것을 좋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에서 그를 해친 거대한 야망, 우유부단, 남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가, 그리스 철학을 라틴어로 처음 유려하고 자세하게 소개한다는 스스로 맡은 일에는 더없이 잘 맞았다. 그는 스토아의 엄밀함에 끌리면서도, 회의적 방법으로 모든 문제의 모든 측면을 논하는 아카데미(플라톤)학파와 가장 자주 어울렸다. 그의 기회주의와 믿지도 않는 생각을 즐기는 능력은 훌륭한 글을 낳았다. 모든 편을 논하던 카르네아데스와 조금 닮은 이 버릇은 주변 사람을 분통 터지게 했지만, 오늘날까지 즐길 수 있는 온갖 이질적인 자료를 틀림없이 보존했다. 성 히에로니무스는 훗날 자신이 성경보다 키케로의 글을 더 사랑할까 걱정했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지금은 사라진 철학 대화편 『호르텐시우스』를 읽고 철학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한 인간이자 지도자로서, 양쪽에 발을 걸친 그의 태도는 부끄러운 악덕이었다.

어법

- **Only Cato—the Stoic who wrote less but lived the ideas—was willing to fight** : 주어 Only Cato 뒤 대시 사이에 동격 삽입. wrote less but lived = but으로 이은 대조 병렬. be willing to V = 기꺼이 ~하다.
- **Cicero eulogized him, attempting to capture in words the power of this Stoic he both admired and judged, but whose commitment to principles he lacked** : attempting ~ = 부연의 분사구문. capture 뒤 부사구 in words가 먼저 오고 목적어 the power ~가 뒤로 갔다. this Stoic 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절과 whose절이 but으로 병렬.
- **although only fifty words of the tribute survive, we know he censored himself for fear of angering Caesar and Caesar's supporters** : although = 양보. survive = 현재형(지금도 남아 있음). for fear of -ing = ~할까 두려워.
- **Cato believed in courage. Cicero believed in not getting killed.** : 전치사 in 뒤 동명사의 부정 = not + -ing. getting killed = get + p.p.(수동의 동작). 같은 동사 believed in을 반복해 대비를 날카롭게 했다.
- **but the Stoics would ask—as we should ask of all self-preserving compromises—"At what cost?"** : ask A of B = B에게 A를 묻다(삽입절에서는 A가 생략되고 of ~만 남음). would = 가정적 추측(스토아라면 물었을 것).
- **In the end it wasn't the accomplishments of public office that made his glory, or how Cicero lived his life, but what he set down in writing** : It was not A (or B) but C that ~ 강조구문의 변형: A · B를 부정하고 C를 강조한다. how ~ · what ~ = 명사절.
- **In what was more a rhetorical exercise than a serious philosophical treatment, he explored six of the primary Stoic paradoxes** : more A than B = B라기보다 A. what =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전치사 In의 목적어).
- **Ironically, what hurt Cicero in politics—the size of his ambition, his vacillation, his desire to please—suited him supremely well** : what절이 주어(대시 사이 = 그 내용) → 동사 suited. what을 that으로 바꾸면 주어가 될 수 없어 비문.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martyr	순교자	—	—
eulogize	추도하다, 찬양하다	praise	denounce
yield to	굴복하다	submit to	resist
bridle	굴레	restraint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tribute	찬사, 추도문	homage	—
censor	검열하다	suppress	—
capitulation	굴복	surrender	resistance
fair-weather	좋을 때만의	fickle	steadfast
counterintuitive	직관에 반하는	paradoxical	obvious
vacillation	우유부단	indecision	resolve
rigor	엄밀함	precision	laxity
skeptical	회의적인	doubtful	credulous
disparate	이질적인	diverse	uniform

내용 일치 카토 = 글은 덜 썼지만 생각을 살아 낸 스토아 · 기원전 46년 우티카에서 자살 · 추도문은 쉰 단어만 남음, 카이사르를 두려워해 스스로 검열 · '굴레를 받아들이다' = 플루타르코스의 표현 · 다리 = 그리스와 라틴 철학(특히 윤리학) · 『스토아 역설』 = 기원전 46년, 마르쿠스 브루투스에게 헌정, 역설 여섯 · 가장 자주 어울린 학파 = 아카데미 · 카르네아데스 · 히에로니무스 · 아우구스티누스(『호르텐시우스』). **밑줄 의미** accept the bridle = 굴레를 쓰듯 카이사르의 지배에 복종하다 / not getting killed = 원칙보다 목숨을 택함 / foot-in-both-camps = 어느 편에도 온전히 서지 않는 양다리 태도(글에는 장점, 지도자로서는 악덕).

> **한 줄 요약** 카토가 용기로 죽을 때 키케로는 살아남는 쪽을 택했고, 그 덕에 그리스 철학을 라틴어로 옮긴 다리가 되었지만 양다리 태도는 지도자로서 악덕이었다.

12-9 쓰되 살지 않은 철학, 끼지 못한 음모 95쪽 ¶4 ~ 96쪽 ¶7

원문 위치 원서 95쪽 ¶4 ~ 96쪽 ¶7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5쪽 ¶4 첫 문장	the bill from the latter came due	지칭: the latter = 지도자로서의 악덕
★	95쪽 ¶4 셋째 문장	De Inventione … around twenty … between 56 BC and 44 BC	숫자 — 내용 일치 1순위
▲	95쪽 ¶5 첫 문장	If Cicero had completely retreated into his books, we might admire him	혼합 가정법(과거완료 → 현재)
▲	95쪽 ¶5 둘째 문장	made it a point to visit Rome	make it a point to V(가목적어)
▲	95쪽 ¶5 셋째 문장	perhaps in the way that he himself had always wished to be flattered	the way that + 수동 to부정사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5쪽 ¶6	Cato, whose martyred body lay fresh in the grave—as did Pompey's—would have been	whose + 대동사 도치 + would have p.p.
★	95쪽 ¶7 첫 문장	In 45 BC, Cicero's beloved daughter Tullia died.	연도·인물 — 서답형 후보
▲	95쪽 ¶7 둘째 문장	Stoicism might have served him well	might have p.p.(그럴 수도 있었다)
◆	96쪽 ¶1 첫 문장	continued to write, but not live, philosophically	요지 1순위
◆	96쪽 ¶1 다섯째 문장	He was like Diotimus, showing us what not to do.	11장 연결 · 밑줄 의미
★	96쪽 ¶2	Tusculan Disputations ... On Virtue ... 45 BC	책 제목·연도 — 내용 일치 후보
▲	96쪽 ¶3 둘째 문장	he was prepared to risk everything to save the country he loved	be prepared to V + 목적의 to부정사
▲	96쪽 ¶3 넷째 문장	too nervous, too untrustworthy, too likely to second-guess the plot or undermine it	too likely to V 병렬
◆	96쪽 ¶3 다섯째 문장	when the moment counted, Cicero couldn't be counted on	밑줄 의미: count의 말놀이
▲	96쪽 ¶5 셋째 문장	claiming that Brutus had shouted his name as he plunged the dagger in	분사구문 + 과거완료 / his · he 지칭
◆	96쪽 ¶7 첫 문장	What's past is prologue	밑줄 의미: 지난 일이 앞날을 예고

내용

결국 지도자로서의 그 악덕이 청구서를 내밀었다. 키케로의 마지막 몇 해는 글을 쓰고 운명의 타격을 피하려는 미친 질주였다. 실제로 스무 살 무렵에 쓴 수사학 책 『발상론(De Inventione)』을 빼면 그의 주요 저작은 모두 기원전 56년부터 44년까지 12년 사이에, 그것도 대부분은 46년부터 44년 사이에 쓰였다. 그가 책 속으로 완전히 물러났다면 우리는 그를 존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그는 일부러 로마에 가서 카이사르에게 경의를 표하고 영예까지 수여했다. 카이사르가 경쟁자 폼페이우스의 허물어진 조각상을 다시 세우자, 키케로는 아마 자신이 늘 받고 싶었던 방식 그대로 그에게 아첨했다. 폼페이우스의 조각상을 세움으로써 당신 자신의 조각상을 굳건히 세웠다는 것이다. 폼페이우스처럼 순교한 몸이 갓 무덤에 누운 카토였다면 그 장면에 구역질을 했을 것이다. 기원전 45년 사랑하던 딸 툴리아가 죽었다. 몇 년 뒤 비극적인 상실을 겪은 친구 브루투스에게 그가 조언하게 되듯, 여기서 스토아 철학이 그에게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댈 것도, 스스로를 다독일 것도 없이 책 속의 생각과 흔들리는 야망만 남은 그는 넋을 잃고 무너졌다. 그래서 키케로는 철학적으로 계속 썼지만 철학적으로 살지는 않았다. 스토아에 관해 계속 썼지만 그 어느 것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그가 철학에 한 큰 기여였다. 제논과 크리시포스, 그리고 그가 글로 다룬 동시대의 스토아 루틸리우스 루푸스와 카토에게서 물려받은 가르침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그는 그 생각들이 왜 중요한지를 증명했다. 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 준 디오티무스 같았다. 키케로는 『투스쿨룸 대화』를 친구 브루투스에게 바쳤고, 기원전 45년 브루투스는 스토아에서 영감을 받은 책 『덕에 관하여』를 써서

키케로에게 바쳤다. 키케로와 달리 브루투스는 그저 손만 대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카토처럼, 진정한 철학자처럼 그는 사랑하는 나라를 구하려고 모든 것을 걸 각오였다. 이제 공화정의 독재관이 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와 다른 음모자들은 계획을 꾸미며 키케로를 빼놓았다. 그가 너무 불안해하고 믿을 수 없으며, 의도했든 아니든 계획을 의심하거나 망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보았다. 결정적인 순간에 키케로는 기댈 수 없는 사람이었다. 충분히 스토아적이지 않았다. 셰익스피어는 카시우스가 키케로를 끌어들이자고 하자 브루투스가 그는 남이 시작한 일을 결코 따르지 않을 사람이라며 반대하는 장면으로 이를 그린다. 그들은 친구에게 용기가 없고 그의 자아가 자신들을 붙잡을까 두려워했고, 역사는 그것을 입증했다. 카이사르가 죽자마자 키케로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자기 공으로 돌리기 시작해, 브루투스가 단검을 꽂으며 자기 이름을 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연설에서, 브루투스가 자기 이름을 부른 것은 아마도 자신과 비슷한 업적을 이룬 뒤 이제 영광에서 경쟁자가 되었음을 증언해 달라고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불렀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지나간 일은 서막이었다. 명성에 대한 욕구와 바람 따라 움직이는 성향은 끝까지 그를 따라다녔다.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 젊은 옥타비아누스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일어서자, 키케로는 또다시 그릇된 편을 골랐고, 자신이 불러오는 데 한몫한 내전에서 복무하기를 보란 듯이 거절했다.

어법

- **with the exception of a book on rhetoric, De Inventione, composed at the early age of around twenty, his major books were all written in a twelve-year span between 56 BC and 44 BC** : with the exception of ~ = ~을 빼면. composed ~ = De Inventione를 꾸미는 과거분사구. twelve-year = 복합 형용사라 단수 year. all은 주어 his major books와 동격(모두).
- **If Cicero had completely retreated into his books, we might admire him** : 혼합 가정법: if절은 과거 사실의 반대(had p.p.), 주절은 현재의 결과(might + 원형) — 그때 물러났다면 지금 우리가 그를 존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 **Plutarch tells us that he made it a point to visit Rome and pay his respects to Caesar, and even awarded him honors** : make it a point to V = 일부러(꼭) ~하다: it은 가목적어, to visit와 (to) pay가 진목적어. awarded는 made와 병렬(award + 사람 + 사물).
- **Cato, whose martyred body lay fresh in the grave—as did Pompey's—would have been sick at the scene** : whose = 소유격 관계대명사. as did Pompey's = as Pompey's (body) lay ~ — 대동사 did + 주어 도치. lay = lie(눕다)의 과거. would have been = (살아서 보았다면) ~했을 것이다.
- **Instead, with nothing to fall back on, nothing to reassure himself, only the ideas in his books and his faltering ambitions, he was bereft and broken** : with + 명사 + to V = ~할 것이 없는 채로(부대상황). fall back on = 의지하다. to fall back on의 on을 빼면 비문(nothing to fall back은 오답).
- **By falling short of the doctrines he passed along from Zeno, from Chrysipus, and even from Stoic peers he wrote about like Rutilius Rufus and Cato, he was proving why the ideas matter** : by -ing = ~함으로써. fall short of = ~에 미치지 못하다. doctrines · peers 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why ~ matter = proving의 목적어인 간접의문문. (원서의 Chrysipus는 Chrysippus의 오자.)
- **They believed he was too nervous, too untrustworthy, too likely to second-guess the plot or undermine it, unintentionally or not** : too likely to V = ~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to second-guess와 (to) undermine 병렬, it = the plot. unintentionally or not = 의도했든 아니든.
- **claiming that Brutus had shouted his name as he plunged the dagger in** : claiming ~ = 부연의 분사구문(주어 Cicero). had shouted = 주장보다 앞선 일(대과거). his name = 키케로의 이름, he plunged = 브루투스. as = ~할 때.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me due	(빚 · 청구서가) 만기가 되다	fall due	—
retreat (v.)	물러나다	withdraw	advance
flatter	아첨하다	fawn on	insult
falter	흔들리다	waver	persist
bereft	(상실로) 넋을 잃은	devastated	—
fall short of	~에 미치지 못하다	fail to meet	live up to
dabble	(취미로) 손대다	tinker	commit
hatch (a plot)	(음모를) 꾸미다	devise	—
out of the loop	(일에서) 빠진	uninformed	in the loop
second-guess	의심하다, 뒤늦게 트집 잡다	doubt	trust
undermine	약화시키다, 망치다	sabotage	strengthen
prologue	서막	prelude	epilogue
dog (v.)	끈질기게 따라다니다	plague	—

내용 일치 『발상론』 = 스무 살 무렵의 수사학 책 · 주요 저작 = 기원전 56~44년의 12년, 대부분 46~44년 · 카이사르에게 경의와 영예(플루타르코스) · 폼페이우스 조각상 재건에 아첨 · 기원전 45년 딸 툴리아의 죽음 · 『투스쿨룸 대화』 → 브루투스에게 / 『덕에 관하여』(기원전 45년) → 키케로에게 · 음모자 = 브루투스 · 카시우스 등, 키케로는 빠짐 · 옥타비아누스 · 안토니우스 때도 그릇된 편. **지칭** 95쪽 ¶4 the latter = 인간 · 지도자로서의 양다리 태도 / ¶5 flatter him = Caesar, your own = 카이사르 자신의 조각상 / 96쪽 ¶3 he was going to assassinate = Brutus, he was too nervous = Cicero / ¶5 his name = Cicero, he plunged = Brutus.

> **한 줄 요약** 글은 계속 썼지만 철학대로 살지 않은 키케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본보기가 되었고, 결정적 순간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카이사르 암살 음모에서도 빠졌다.

12-10 의무를 쓴 마지막 책, 짓지 않은 내면의 성채 96쪽 ¶8 ~ 98쪽 ¶6+인용

원문 위치 원서 96쪽 ¶8 ~ 98쪽 ¶6+인용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6쪽 ¶8 첫 문장	Cicero's final work, surprisingly, would be on duty.	요지·내용 일치 후보
★	96쪽 ¶8 일곱째 문장	his twenty-one-year-old son, Marcus … in Athens	숫자·인물 — 서답형 후보
▲	97쪽 첫 줄	a stronger sense of moral purpose than his own ambitious father had in himself	비교 대상 + 대동사 had
◆	97쪽 첫 줄 둘째 문장	like Hercules at the crossroads	밑줄 의미: 덕과 악덕의 갈림길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7쪽 인용	on the discharge of such duties depends all that is morally right	부사구 문두 → 동사 · 주어 도치
◆	97쪽 ¶2 둘째 문장	What was missing, it seems, is any personal absorption of them.	요지 후보 · 추측 표현 it seems
▲	97쪽 ¶3 첫 문장	it would be Cicero's love of rhetoric that would seal his personal fate	강조구문
★	97쪽 ¶3 셋째 문장	fourteen orations against Mark Antony	숫자 — 서답형 후보
▲	97쪽 ¶4 첫 문장	It would be one thing if Cicero had, as Cato would have, simply condemned	혼합 가정법 + 대동사 would have
◆	97쪽 ¶4 셋째 문장	splitting the difference, not standing on principle	밑줄 의미: 원칙 대신 계산
▲	97쪽 ¶5 넷째 문장	deprived of a trial—as he had deprived his enemies so many years before—the sentence was in	현수 분사 + deprive A of B
●	98쪽 ¶1 넷째 문장	his life might not have turned out differently, but he would have been steadier	반전 후보(삶이 달라졌으리라는 단정 아님)
★	98쪽 ¶2 둘째 문장	the inner citadel ... because he had not built it when he had the chance	빈칸·주장 1순위
★	98쪽 ¶4 셋째 문장	on a road between Naples and Rome	지명 — 내용 일치 후보
▲	98쪽 둘째 인용	Would that he had been able to endure prosperity	Would that + 가정법 과거완료
◆	98쪽 둘째 인용	He invited enmity with greater spirit than he fought it.	밑줄 의미: 적을 만드는 데 더 열심

내용

키케로의 마지막 저작은 뜻밖에도 의무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경력은 의무를 위한 것이었던 적이 없었다. 명성, 명예, 의심하는 자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 그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스물한 살 아들 마르쿠스가 아테네에서 철학 수업의 첫해를 막 마치던 때, 아마 키케로는 야심 찬 아버지 자신이 지녔던 것보다 더 강한 도덕적 목적의식을 아들에게 심어 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 책은 갈림길에 선 헤라클레스처럼 마르쿠스가 악덕의 유혹을 받아 덕의 길을 버릴 위험에 놓였다고 전제한다. 키케로는 디오게네스, 안티파트로스, 파나이티오스(무엇보다도), 포시도니오스의 작업을 이어받아 스토아 윤리 이론을 세울 뿐 아니라, 길을 벗어난 아들이 파멸로 가지 않도록 실천 지침을 주었다. 헌사에서 그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삶의 어느 국면도 도덕적 의무 없이 있을 수 없으며 도덕적으로 옳은 모든 것이 그 의무를 다하는 데 달려 있다고 썼다. 그가 쓴 거의 모든 것처럼 잘 쓴 말이다. 빠진 것은, 아마도, 그 말을 자기 것으로 삼는 일이었다. 결국 그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수사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는 고발자들 앞에서 말을 아낀 루틸리우스 루푸스를 나무라며

수사가 그를 구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벼랑 끝에 선 기원전 44~43년, 그는 카이사르의 권력을 이은 후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겨냥한 연설을 열네 번 했다. 카토라면 그랬을 것처럼 과잉과 잔혹함을 그저 규탄했다면 이야기가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필리피카』로 알려진 이 연설은, 똑같이 권위주의적 속셈을 지닌 안토니우스와 카이사르의 조카 옥타비아누스를 맞붙이려는 정치적 술책이었다. 그는 원칙에 서지 않고 양쪽 사이에서 계산했다. 200여 년 전 데모스테네스의 연설에 자기 연설을 거창하게 견준 것을 보면, 이번에도 그를 움직인 것은 진실보다 주목이었다. 그 발언이 그를 파멸시켰다. 카이사르는 폭군이었지만 늘 관용과 유머를 보였고 수사의 기술을 사랑했다. 안토니우스에게는 그런 너그러움이 없었다. 제2차 삼두정치는 며칠 동안 그의 운명을 논의했고, 오래전 그가 정적들에게 그랬듯 그에게도 재판은 없었다. 판결은 사형이었다. 그는 달아나려다 망설이며 돌아왔고, 카토처럼 극적인 자살을 생각했지만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일 앞에서 몸서리치며 버텼다. 그는 많은 것을 이루었고, 누구도 다시는 그의 미천한 출신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이름을 떨쳐 한동안 '새로운 사람'을 넘어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려고 많은 것을 타협했다. 자기 절제와 중용(그의 통통한 얼굴이 보여 주듯), 의무와 책임이라는 스토아의 엄격한 부분을 외면했고, 신탁을 거슬러 양심을 무시하고 군중의 환호를 좇았다. 저자는 그가 포시도니오스와 제논을 더 잘 따랐다면 삶이 다르게 흘러가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더 꿋꿋하고 강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잔인한 운명이 덮쳐 오는 순간 그를 버티게 해 줄 것은 그 안에도, 형편 좋을 때만의 개인 철학에도 없었다. 수많은 스토아가 죽음 앞에서 기댄 내면의 성채에 그는 기댈 수 없었다. 기회가 있을 때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비를 바랐지만 자비는 오지 않았다. 쫓기던 짐승처럼 지친 그는 싸움을 포기했고, 암살자들은 나폴리와 로마 사이의 길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그는 참수되었고, 머리와 두 손과 혀는 포룸과 안토니우스의 집에 꽂혀 전시되었다. 셰익스피어는 이 위인의 갑작스러운 몰락을 "키케로는 죽었다"는 한마디로 그렸다. 카이사르의 병사였던 가이우스 아시니우스 폴리오는 그가 번영을 더 절제하며, 역경을 더 꿋꿋하게 견딜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는 적과 싸운 것보다 더 큰 기세로 적의를 불러들였다는 묘비명을 남겼다.

어법

- **perhaps Cicero wished to instill in his boy a stronger sense of moral purpose than his own ambitious father had in himself** : instill A in B에서 목적어 A가 길어 in his boy 뒤로 갔다. than 뒤 had = 대동사(had a sense of moral purpose). his own ambitious father = 키케로 자신(아들 쪽에서 본 표현). perhaps = 저자의 추측.
- **on the discharge of such duties depends all that is morally right, and on their neglect all that is morally wrong in life** : 부사구(on ~)가 문두로 나가 동사 depends와 주어 all that ~가 도치. 둘째 부분은 반복되는 depends를 생략. all that = ~하는 모든 것(단수 취급).
- **it would be Cicero's love of rhetoric that would seal his personal fate** : It ~ that 강조구문(주어 Cicero's love of rhetoric 강조). would = 과거에서 본 미래. seal one's fate = 운명을 결정짓다.
- **It would be one thing if Cicero had, as Cato would have, simply condemned excess and brutality where he saw it** : if + 과거완료(had condemned) + would be one thing = ~했다면 또 모르겠다(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 as Cato would have (done) = 대동사. where he saw it = 그것을 본 곳에서.
- **his Philippics, as the speeches are now known, were a political ploy to play Mark Antony off Octavian, Caesar's nephew, both with equally authoritarian designs** : as the speeches are now known = 삽입절. play A off B = A와 B를 서로 싸우게 해 이득을 보다. Caesar's nephew = Octavian의 동격. both with ~ = 두 사람 모두 ~을 지닌.
- **deprived of a trial—as he had deprived his enemies so many years before—the sentence was in: death** : deprived of a trial의 의미상 주어는 키케로인데 주절 주어는 the sentence — 현수 분사다. deprive A of B = A에게서 B를 빼앗다. 대시 사이 = 그가 과거에 한 일(과거완료)과의 대비.

- **He could not rely on the inner citadel that countless Stoics had when they faced death, because he had not built it when he had the chance** : had not built = 과거완료(기댈 수 없던 때보다 앞서 짓지 않았다). 앞 had와 뒤 had the chance는 '가지다'의 과거형 본동사. it = the inner citadel.
- **Would that he had been able to endure prosperity with more self-control, and adversity with more fortitude** : Would that + S + had p.p. =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I wish he had been able ~). 둘째 부분은 to endure가 생략되고 목적어 adversity만 남았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still	(생각을) 심어 주다	implant	—
woo	유혹하다, 구애하다	court	repel
forsake	버리다	abandon	keep to
wayward	제멋대로인	unruly	obedient
precept	지침, 교훈	rule, principle	—
chide	꾸짖다	rebuke	praise
ploy	술책	tactic	—
grandiose	거창한	pompous	modest
leniency	관용	mercy	severity
waver	망설이다	hesitate	persist
citadel	성채	fortress	—
epitaph	묘비명	inscription	—
fortitude	꿋꿋함	resilience	weakness

내용 일치 마지막 저작 = 의무 · 아들 마르쿠스 21세(아테네 철학 수업 첫해) · 헤라클레스의 갈림길 · 파나이티오스(무엇보다도) 등 · 루틸리우스의 간결함을 나무람 · 기원전 44~43년 안토니우스를 겨냥한 연설 14번 = 『필리피카』 · 데모스테네스(200여 년 전) · 제2차 삼두정치 · 재판 없이 사형 · 나폴리와 로마 사이의 길 · 포룸과 안토니우스의 집 · 묘비명 = 카이사르의 병사 폴리오. **밑줄 의미** Hercules at the crossroads = 덕과 악덕의 갈림길에 선 아들 / splitting the difference = 원칙이 아니라 양쪽 사이의 계산 / the inner citadel = 위기 전에 미리 지어 두어야 하는 내면의 버팀목 / He invited enmity … than he fought it = 적과 맞서기보다 적을 만드는 데 더 기세가 셌다.

> **한 줄 요약** 의무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책을 남긴 키케로는 끝내 그 의무를 자기 것으로 삼지 못했고, 내면의 성채 없이 맞은 마지막은 갑작스럽고 폭력적이었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Lives of the Stoics [Chapter 12 CICERO]

범위	Cicero the Fellow Traveler (원서 PDF 86~98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Cicero had done everything a Roman could hope to do. He had held the highest offices and made people forget his humble birth. Yet to climb so high he had given up a great deal. He brushed aside the harder lessons of Stoicism—self-discipline, moderation, duty—and he chose the applause of the crowd over the voice of his conscience. Following Posidonius and Zeno more faithfully might not have changed his fate, but it would have made him steadier and stronger. When cruel fortune finally closed in, he found nothing inside to lean on. The inner fortress that so many Stoics relied on when facing death cannot be raised in a single desperate hour; it has to be built while there is still time.

① Success in public life is the best protection against misfortune.
② Inner strength must be built before a crisis arrives.
③ Ambitious people should not study philosophy.
④ The approval of the crowd is a reliable guide to action.
⑤ A person's fate is decided entirely by his teachers.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For Cicero, Sicily was only a stepping stone. In 71 BC he agreed to act as prosecutor against Verres, a man the Sicilians accused of extortion. Winning the case, he hoped, would help him climb to the next rung of the "ladder of offices," the post of aedile. He spent fifty exhausting days gathering evidence and came back to Rome with a mountain of documents. Over three years on the island, Verres had pocketed forty million sesterces. Cicero knew that the jurors had been paid off, yet he still got Verres convicted—and since he had also become aedile, he had won twice.

① Sicily: Rome's Richest Province
② How Verres Bribed His Way to Freedom
③ A Double Victory: Cicero Takes On Verres
④ Why Cicero Refused to Become an Aedile
⑤ Fifty Days of Investigation That Ended in Defeat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Even after his life fell apart, Cicero kept writing about philosophy, but he never lived by it. Oddly, this became one of his great gifts to Stoicism. He handed down the teachings of Zeno and Chrysippus and described Stoics of his own era such as Rutilius Rufus and Cato, yet he himself fell short of everything he described. In doing so, he showed exactly why those teachings matter. Like Diotimus, he serves as a warning, a model of what not to do. His books are beautifully written. What they lack, it seems, is any sign that their author took them to heart.

① Writing about philosophy is more valuable than practicing it.
② Cicero's books are poorly written but morally sound.
③ Diotimus was a better Stoic than Cicero.
④ Cicero's failure to live by Stoicism shows why its teachings matter.
⑤ Stoic teachings are too difficult for anyone to follow.

4. 밑줄 친 a fellow traveler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Cicero cannot be called a Stoic, and he would never have called himself one. Still, nobody can deny how devotedly he studied the Stoics. He learned from Posidonius himself. In Tusculan Disputations he even declared the Stoics the only true philosophers, and a large part of our knowledge of ancient Stoicism exists only because he recorded it. For all that, he could never bring himself to follow in his own life the ideas he worked so hard to explain and preserve. In short, Cicero was a fellow traveler: someone who belonged to no party and who, despite his success, lacked the bravery and strength of character that his times, and Stoicism itself, required of him.

① someone who traveled widely to study under many teachers
② a loyal member of the Stoic school who led its followers
③ someone who supported a cause and walked beside it without fully committing to it
④ a political enemy who tried to destroy the Stoics
⑤ a scholar who gave up philosophy for politics

5. 밑줄 친 a Pyrrhic victory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ith Pompey dead, this should have been the great moment for a trained philosopher and gifted speaker like Cicero. Yet this restless climber was not ready for it. Looking back, we can see that he had used up his energy on the wrong emergency. Believing that the Catiline affair was his great performance before history, he had acted too early and too harshly. It brought him fame, but it was a Pyrrhic victory. Now, when the Republic truly hung in the balance and his gift for persuasion was needed more than ever, he could no longer gather an audience willing to listen.

① a triumph that won him the lasting loyalty of the crowd
② a defeat that later turned out to be a blessing
③ a victory that he owed entirely to Caesar's help
④ a battle that he won without using his gift for speech
⑤ a success that cost him so much that he could not act when it mattered most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Unlike Cicero, Brutus was not simply toying with Stoic ideas; like Cato, he was willing to risk everything for the country he loved, even if it meant killing Julius Caesar, now dictator. When Brutus, Cassius, and their fellow plotters planned the murder, they left Cicero out. They judged that ① he was too nervous and too unreliable, and that ② he might doubt or even ruin the plot. Put simply, at the decisive moment ③ he could not be relied on. History proved them right: almost as soon as Caesar was dead, Cicero began taking credit for the deed, insisting that Brutus had cried out ④ his name as ⑤ he drove in the dagger.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In 90 BC Cicero's father sent his sixteen-year-old son to Rome to study law and public speaking. While other wealthy young men amused themselves, he worked like someone with a point to prove. According to one report, he wrote up to five hundred lines a night, as Chrysippus supposedly had. He also made friends with promising young men, among them Gaius Julius Caesar, six years younger than he was. At eighteen he became a follower of Philo of Larissa, the Platonic Academy's leader, who had escaped from Athens to Rome.

① 키케로는 열여섯 살에 스스로 결심하고 로마로 떠났다.
② 키케로는 하룻밤에 500행이나 썼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③ 키케로는 다른 부유한 젊은이들처럼 재산을 즐기며 지냈다.
④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키케로보다 여섯 살 많았다.
⑤ 라리사의 필론은 로마에서 아테네로 피신한 아카데미의 수장이었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Cicero next set his sights on the office of praetor. He won it in 67 BC at the age of thirty-nine, thanks in large part to his support for Pompey, and took up the post in 66 BC at forty, the youngest age the law allowed. Next came the greatest prize of all: the consulship, which made a man chairman of the Senate and commander of the army. The historian Gerard Lavery notes that only ten "new men" became consul in the Republic's last 150 years, and from 93 to 43 BC Cicero was the only one. Facing two rivals, Catiline and Antonius, Cicero attacked Catiline in fierce speeches, warned of a plot against the Republic, and won.

① 키케로는 법무관 선거에서 폼페이우스를 지지한 덕을 크게 보았다.
② 키케로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젊은 나이에 법무관 직무를 맡았다.
③ 집정관은 원로원 의장이자 로마군의 사령관이었다.
④ 기원전 93년부터 43년까지 '새로운 사람'으로 집정관이 된 사람은 키케로 말고도 여럿이었다.
⑤ 키케로는 카틸리나와 안토니우스를 경쟁자로 맞아 집정관에 당선되었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As his twenties drew to a close, Cicero had ticked every box, and it was time to begin the political rise ① that he had long been preparing. At thirty, a Roman could stand for quaestor and afterward ② enter the Senate. His family used its money and contacts ③ to ensure that his first campaign was an easy victory. He was not only gifted but hard-working. According to Plutarch, he made a habit of ④ knowing not just the names of all his important voters but also how much land they owned, what trades they ran, and what they needed—a practice ⑤ inspiring by craftsmen who could name every tool in their workshops.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rough the whole ordeal, Cicero's belief in his own greatness was left untouched. Plutarch reports that within days he started a campaign to polish his record, and that nobody could sit in the Senate or the courts without (A) [hearing / to hear] the same boasts over and over. No amount of praise ever satisfied him. He even tried to persuade Posidonius (B) [covering / to cover] his year as consul in the philosopher's history of fifty-two volumes. When Posidonius said no, Cicero sent Pompey a book-length letter about his own deeds, (C) [which / what] Pompey acknowledged with only a shrug.

	(A)	(B)	(C)
①	hearing	to cover	which
②	to hear	covering	what
③	hearing	covering	which
④	to hear	to cover	which
⑤	hearing	to cover	what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Ever since Zeno and Cleanthes, Stoics had generally been ① indifferent to riches and rank. Cicero respected them, but he could not live with such firmness; rather than avoiding luxury, he ② pursued it. He married Terentia, a rich woman, and eventually owned nine villas, including the one at Tusculum that had once been Sulla's. Cleanthes, on Zeno's advice, had ③ accepted the bequests offered to him, but Cicero seemed almost to make a profession of collecting inheritances, and he later counted over twenty million sesterces received this way. Yet, unlike so many politicians in Rome, he ④ refused every bribe and would not take legal fees. Of course, such a stand is ⑤ easier when you have inherited millions.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In these years Cicero mostly avoided the city and returned to writing. In On Oratory (56 BC), he set Cato's speaking style beside that of Rutilius Rufus, arguing that Rufus's Stoic brevity had failed him at the very moment when fine speaking could have saved him. He also wrote Republic and Laws, drawing on Panaetius and Diogenes of Babylon. Yet, like many historians, Cicero overlooked what was right in front of him: _____. What tied those four Stoics together was not their skill with words but their character, their commitment, and their sense of purpose.

① the way these Stoics had actually lived
② the power of a well-made speech
③ the books these Stoics had written
④ the political dangers facing Rome
⑤ the wealth of his own family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His wife, Terentia, settled the matter, reading a sacrifice that had alarmed others as an omen that he must use his power.

The trusting Senate gave Cicero near-dictatorial powers to crush the threat. (①) Under that pressure, both Cicero and the Republic began to bend. (②) Cato the Stoic urged him to apply the full force of the law, which, he said, was only fair. (③) Yet with absolute power in hand, Cicero hesitated—not out of moral concern, but because, as always, he feared for his reputation. (④) By his order the conspirators were executed without trial, and thousands of their armed supporters died as well. (⑤) The grateful Senate named him "Father of His Country."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Ironically, the traits that hurt Cicero in politics—ambition, wavering, eagerness to please—suited his chosen task: being the first to present Greek philosophy eloquently in Latin. ① Though drawn to Stoic precision, he sided most often with the skeptical Academic school, which argued every side of a question. ② Like Carneades, he argued all sides, a maddening habit that nevertheless preserved many sources we still enjoy. ③ His prose was beautiful: Saint Jerome feared he loved it more than Scripture, and Saint Augustine turned to philosophy after reading the lost Hortensius. ④ Cicero's family name came from cicer, a Latin term meaning chickpea. ⑤ As a person and a leader, however, his habit of keeping a foot in both camps was a shameful vice.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the end, it was his passion for rhetoric that decided Cicero's fate. He had once criticized Rutilius Rufus for keeping his words short before his accusers, claiming that good speaking might have saved him.

(A) Those speeches ruined him. Caesar, for all his tyranny, had always been forgiving and good-humored, and he adored fine oratory. Mark Antony had none of that gentleness.

(B) Yet Cicero himself, in 44–43 BC, delivered fourteen speeches attacking Mark Antony, who was among the men who inherited Caesar's power.

(C) After debating his fate for several days, the Second Triumvirate denied him a trial, just as he had once denied one to his enemies, and sentenced him to death.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Cato alone, a Stoic who wrote little but practiced what he believed, chose to fight Caesar, and it was still not enough. In 46 BC, as Caesar's power grew, Cato took his own life in Utica and became a martyr for the Republic. Cicero wrote a eulogy for him, trying to capture the strength of a man he admired and yet criticized, and whose devotion to principle he himself lacked. Only fifty words of it survive, yet we know Cicero held back for fear of offending Caesar and his supporters. Both men wanted to do right, but Cicero valued his own safety a little more: Cato put his faith in courage; Cicero put his in staying alive.

→ Unlike Cato, who (A) _____ his life for his principles, Cicero chose (B) _____, even holding back his praise of Cato to avoid angering Caesar.

① saved ..... martyrdom
② risked ..... rebellion
③ sacrificed ..... self-preservation
④ saved ..... self-preservation
⑤ sacrificed ..... martyrdom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8)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Cicero, a native of Arpinum, a small town southeast of Rome, was born in 106 BC. As a young man he studied Stoicism under Posidonius in Rhodes. As consul in 63 BC, he delivered his greatest speech against Catiline. When Posidonius declined to write about his consulship, he sent Pompey a book-length letter about his own deeds. During the civil war he refused to lead troops for the Republican side, while Cato fought on and finally took his own life in Utica. Cicero dedicated his Stoic Paradoxes to Brutus, and he was the first writer to explain Greek philosophy in Latin with eloquence and detail.

<QUIZ>

(1) In which city did Cicero study Stoicism under Posidonius?

Answer for (1): _____

(2) Is it true or false that Cicero was born in Arpinum?

Answer for (2): _____

(3) To whom did Cicero send a book-length letter about his own deeds?

Answer for (3): _____

(4) Where did Cato take his own life?

Answer for (4): _____

(5) To whom did Cicero dedicate his Stoic Paradoxes?

Answer for (5): _____

(6) In which language did Cicero first explain Greek philosophy with eloquence and detail?

Answer for (6): _____

(7) Is it true or false that Cicero agreed to lead troops for the Republican side?

Answer for (7): _____

(8) Against whom did Cicero deliver his greatest speech in 63 BC?

Answer for (8): _____

<보 기>

A. Athens	N. Naples
B. Brutus	O. Octavian
C. Catiline	P. Pompey
D. Diodotus	Q. Posidonius
E. True	R. Rhodes
F. Formiae	S. Sicily
G. Greek	T. Terentia
H. Cassius	U. Utica
I. False	V. Verres
J. Julius Caesar	W. Antonius
K. Cato	X. Tusculum
L. Latin	Y. Marius
M. Mark Antony	Z. Rome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키케로가 스토아였다고는 할 수 없다. (It cannot be said that ~)

02 스토아야말로 유일한 참된 철학자다. (It is ~ who 강조구문)

03 친구들은 키케로가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suggest that + S + 원형)

04 그런 경고는 따르기가 불가능했다. (난이 형용사 + to V)

05 아르피눔 사람이 짚어 주지 않았다면 그 도시는 무덤을 몰랐을 것이다. (had not + S + p.p. 도치)

06 그의 스승은 이 관행을 그리 역겨워했을 리 없다. (could not have been p.p.)

07 위협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간접의문문 주어 + remains)

08 그는 포시도니오스에게 자기 집정관 시절을 다뤄 달라고 설득하려 했다. (induce + O + to V)

09 그의 재능이 이보다 더 필요했던 적은 없었다. (Never before + had + S + been p.p.)

10 그는 카이사르를 화나게 할까 두려워 스스로 검열했다. (for fear of -ing)

11 그가 책 속으로 완전히 물러났다면 우리는 그를 존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혼합 가정법)

12 그가 번영을 더 절제하며 견딜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Would that + S + had p.p.)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출생 연도 · 날짜 / 출신 도시 / 로마와의 거리	
집안 이름의 뜻 / 정치에 나선 목적	
첫 영감을 준 인물 / 둘이 공유한 신분	
함께 살다 죽은 눈먼 스토아 / 죽은 해	
로마에 온 해와 나이 / 공부한 것	
하룻밤에 썼다는 분량 / 여섯 살 아래 친구	
18세에 따른 스승 / 그의 직위	
스토아를 배운 곳과 스승 / 로마로 돌아온 나이	
세네카가 고르라 한 잣대 / 키케로가 고른 본보기	
재무관 출마 나이 / 말뜻	
시칠리아 부임 연도 / 찾아낸 무덤	
베레스가 훔친 돈 / 조사 기간 / 얻은 관직	
소유한 별장 수 / 유증으로 받은 돈	
법무관 당선 나이와 해 / 새로운 사람 집정관 수	
집정관 경쟁자 / 취임 연도	

항목	답
선거 뇌물 처벌 / 원로원이 준 칭호	
자기 업적 편지를 받은 사람 · 해 / 집정관 시절 기록을 거절한 사람	
삼두정치 / 키케로가 추방된 해	
카토가 죽은 곳과 해 / 『스토아 역설』을 바친 사람	
딸의 이름과 죽은 해 / 안토니우스 겨냥 연설 수	
죽은 곳 / 묘비명을 쓴 사람	

4-3. 통합 사고 문제 — 10장과 12장을 잇는 자리

문제

10장에서 포시도니오스가 망상 속에 죽어 가는 마리우스를 지켜본 뒤 '야망을 경계하라, 군중을 피하라'는 교훈을 남긴 일(78쪽 ¶1~¶2 · ¶7)과, 12장에서 그의 제자 키케로가 바로 그 마리우스를 첫 본보기로 삼고 신탁의 경고를 거슬러 명성과 군중의 환호를 좇은 일(87쪽 ¶7, 88쪽 ¶8 ~ 89쪽 첫 줄, 89쪽 ¶6, 98쪽 ¶1)을 비교하여, 스승이 경계하라고 가르쳤지만 제자가 끝내 다스리지 못한 것을 영어 한 단어로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10장 또는 12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스승의 경고: Be wary of _____. Avoid the mob.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